

2018 사회적경제 박람회 국제학술행사

2018 社会的經濟博覧会 国際學術行事

사회적경제와 커뮤니티 케어

한·일 국제포럼

社会的經濟とコミュニティケア

日韓国際フォーラム

일시 : 2018.7.14.(토) 10:00 ~ 13:00

장소 : 대구 EXCO 324호

주최 :  재단법인 중앙자활센터, 전국광역자활센터협회,  대구광역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행 사 일 정

시 간	내 용	비 고
~10:00	○ 등록	
10:00~10:20	○ 개회 및 참석자 소개 ○ 개회사 : 이병학 (중앙자활센터 원장) ○ 축 사 : 나가토 유조 (일본노동자협동조합연합회 명예이사) 이현수 (전국광역자활센터협회장) 김재경 (대구광역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소장) 박준홍 (한국지역자활센터협회장)	
10:20~11:10	○ 해외사례와 비교한 한국형 커뮤니티 케어 - 발제 : 김승연(서울연구원 부연구위원)	
11:10~12:00	○ 일본의 사회적 경제와 커뮤니티 케어 사례 - 발제 : 타시마 야스토시(일본노동조합동조합연합회 전무이사)	순차통역 (토모오카 유키)
12:00~12:20	○ 토론 - 좌장 : 박송묵(대구광역자활센터장) - 토론 : 서광국(중앙자활센터 사무처장) 김삼용(전국광역자활센터협회 정책위원장) 윤문주(사회복지법인한사랑 이사장)	
12:20~12:30	○ 폐회	
12:30~14:00	○ 한일교류회	오찬

목 차

개회사, 커뮤니티 케어와 자활의 역할	1
----------------------------	---

이병학 || 중앙자활센터 원장

발제 1. 해외사례와 비교한 한국형 커뮤니티 케어	5
-----------------------------------	---

김승연 || 서울연구원 부연구원

발제 2. 일본의 사회적경제와 커뮤니티 케어 사례	35
-----------------------------------	----

타스마 야스토시 || 일본노동자협동조합연합회 전무이사

토론	49
----------	----

서광국 || 중앙자활센터 사무처장

김삼용 || 전국광역자활센터협회 정책위원장

윤문주 || 사회복지법인한사랑 이사장

개회사

**커뮤니티 케어와
자활의 역할**

이병학
(중앙자활센터 원장)

커뮤니티 케어와 자활의 역할

새로운 정부의 출범이후 커뮤니티 케어에 대한 관심이 높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3월「커뮤니티 케어 추진본부」를 구성하여, 7월까지 ‘커뮤니티 케어 로드맵’을 발표하고, 연내 “재가 및 지역사회 중심 선도사업” 모델을 개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정부의 흐름에 발맞추어, 커뮤니티 케어와 사회적경제의 연계, 특히 자활사업과의 연계를 모색하기 위해 마련하였습니다.

커뮤니티 케어는 서구에서 1990년대에 시설중심의 서비스를 지역사회 중심으로 전환하면서 등장하였습니다. 우리나라도 “돌봄(Care)을 필요로 하는 주민들이 지역사회(Community)에 거주하면서 개개인의 욕구에 맞는 복지급여와 서비스를 누리고, 지역사회와 함께 어울려 살아가며 자아실현과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혁신적인 사회서비스 체계”(보건복지부)라고 의미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커뮤니티 케어가 시행되기 위해서는 절대적으로 부족한 사회서비스의 확대, 보건의료와 사회서비스의 통합·연계 시스템 구축 등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습니다. 그러나 예산과 시스템 이상으로 중요한 것이 커뮤니티 케어의 공동체적 성격을 어떻게 담아낼까 하는 점입니다.

지금도 여전히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대규모 시설중심의 사회복지서비스는 집단수용에 따른 인권침해, 과도한 개인생활 통제 등 여러 가지 사회적 문제를 야기해 왔으며, 탈시설화 및 지역사회 소규모 거주시설로의 전환 필요성이 제기되는 근거가 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소규모지역사회 거주시설로 전환한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최근 광주의 장애인그룹홈에서 거주자에 대한 인권침해, 저질의 식사제공, 시설의 부정운영 사례가 발생한 것이 말해 줍니다.

이는 사회복지서비스가 기본적으로 사람 사이의 관계에 기반하고 있는 특성에서 기인합니다. 공급자와 이용자 사이의 공동체적 관계, 지역사회의 관심과 따뜻한 보살핌이 없으면 시설규모를 줄이고, 커뮤니티 케어를 도입한다고 해도 문제가 해결되기 어렵습니다. 이런 점에서 일하는 사람간의 협동, 이용자와의 협동, 지역사회와의 협동이라는 철학을 바탕으로 공동체에 기반한 커뮤니티 케어를 실천하고 있는 일본노협의 사례는 우리에게 훌륭한 참고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우리는 커뮤니티 케어라는 표현을 하지 않았지만 오래전부터 자활사업의 지역화, 지역사회의 필요를 해결하는 조직으로서의 지역자활센터와 자활기업을 강조해 왔습니다. 또한 조직운영에 있어 참여자가 주체가 되는 조직을 만들기 위해 애써왔습니다. 따라서 커뮤니티 케어가 지역사회에 자리잡는데 있어 지역자활센터와 자활기업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모쪼록 오늘 자리가 한국형 커뮤니티 케어의 방향에 대한 고민, 자활의 역할에 대한 진지한 모색이 이루어지는 자리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고맙습니다.

발제 1

해외사례와 비교한 한국형 커뮤니티 케어

김승연

(서울연구원 부연구원)

한국형 커뮤니티 케어 개념 및 추진방향

김승연
2018.07.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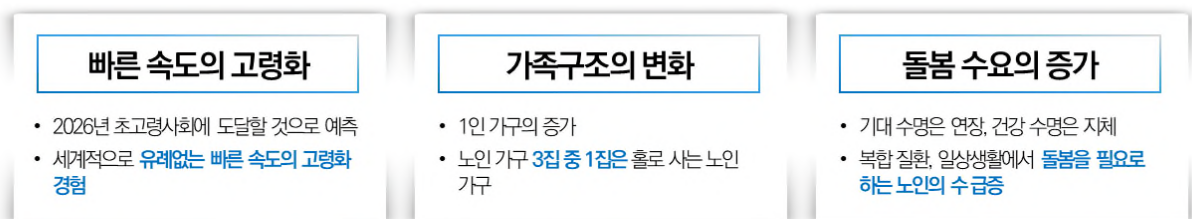
목 차

- 01. 왜 커뮤니티 케어인가?
- 02. 정부의 추진 상황 및 내용
- 03. 커뮤니티 케어 추진을 위한 접근방법
- 04. 커뮤니티 케어를 위한 핵심과제와 추진 방향
- 05. 국내·외 사례_커뮤니티케어와 사회적 경제
- 06. 맺음말

01. 왜 커뮤니티 케어인가?

01. 왜 커뮤니티 케어인가?

1. 변화하는 한국, 돌봄이 필요한 사회



우리 사회에서 '돌봄'은 개인, 가족이 짊어져야 하는 피할 수 없는 굴레

정부의 다각적인 사회서비스 확대에도 급증하는 돌봄 수요 충족 역부족

01. 왜 커뮤니티 케어인가?

2. 복지 시설·병원 중심의 케어 시스템 한계 봉착

1) 만연해지는 사회적 입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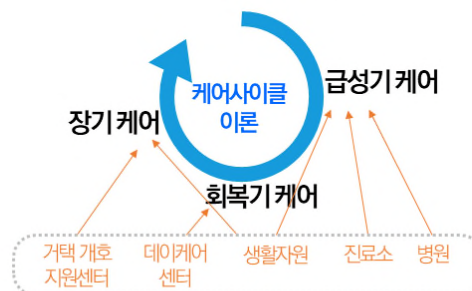
- 직접제공 방식보다 시설 위탁방식의 서비스 제공이 지배적
- 가정 내에서 일상적인 돌봄이 어려운 경우, 치료나 집중적인 돌봄이 필요한 상태가 아님에도 병원과 시설에 머무를 수 밖에 없는 '사회적 입원'이 만연
- 2016년 말 기준, 국내 복지시설이나 병원에서 생활하는 74만 명 중 다른 선택지가 없어서, 반강제적으로 시설·병원에 입원한 사람은 6만 명(8%)으로 추정
- 입원치료가 필요 없는 입원환자 수는 3년 만에 34.6% 증가(58,505명), 총 진료비 67.2% 증가(3,490억 원)
- 장기입원자 중 약 48%가 의료적 필요가 아닌 간병인 부재·주거 열악 등 다른 필요에 의해 입원
- 요양병원 입원자 중 신체기능저하군, 인지장애군 등을 겪고 있는 사람 중 37%는 스스로 정상적인 생활이 가능하거나 부분적 도움만 있으면 일상생활이 가능한 것으로 나타남

01. 왜 커뮤니티 케어인가?

2. 복지 시설·병원 중심의 케어 시스템 한계 봉착

2) '케어사이클'에 대한 체계적 대응 부재

- 고령자에게 의료적·비의료적 돌봄 필요가 연쇄적으로 나타나지만, 돌봄서비스가 유기적으로 제공되지 못함



급성기 치료의 장기화, 재활이 안되는 회복기, 만성적인 장기요양 상태에 놓이게 됨

01. 왜 커뮤니티 케어인가?

2. 복지 시설·병원 중심의 케어 시스템 한계 봉착

3) 시설에서 시설로, '회전문 현상'

- 다양한 탈시설 정책이 진행되고 있지만, 시설을 나와 집과 지역사회에서 정착할 수 있는 지원체계가 미흡하여 다시 시설로 돌아갈 수 밖에 없는 '시설의 회전문 현상' 반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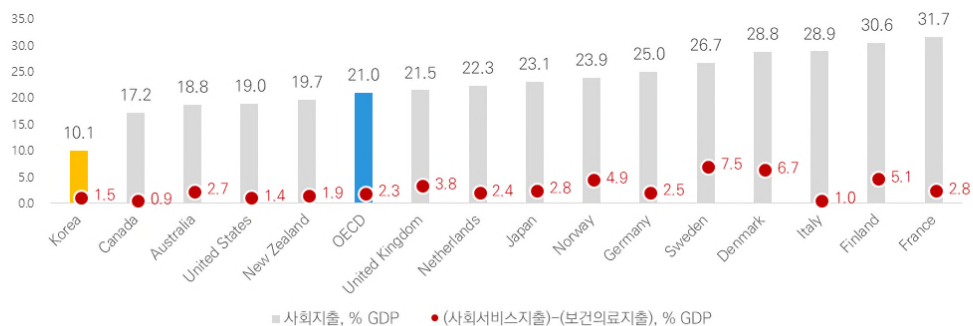
- 국가인권위원회 실태조사 결과(2012) 가족의 노령화·장애 등으로 나를 돌볼 사람이 없어서, 경제적으로 먹고 살기 힘들어서, 가족들과의 관계가 원만하지 못하거나 가족들에게 부담이 되기 싫어서, 마땅히 살 곳이 없어서 등의 이유로 시설 입소 또는 재입소를 선택
- 정신장애인이 시설에서 퇴원 후 보호의무자에 의해 타 시설로 강제입원되는 비율 25.2% 중, 증상 악화 및 재발 44.7%, 지낼 곳이 마땅치 않거나 보호자의 편의 때문은 35.6%

01. 왜 커뮤니티 케어인가?

3. 지역사회 돌봄 체계의 미흡

1) 불충분한 사회서비스

- OECD 국가들에 비해 여전히 낮은 사회보장지출 수준과 사회서비스 지출 수준
- 대상의 보편성(universality), 서비스의 포괄성(comprehensiveness), 서비스 수준의 적절성(adequacy) 측면에서 불충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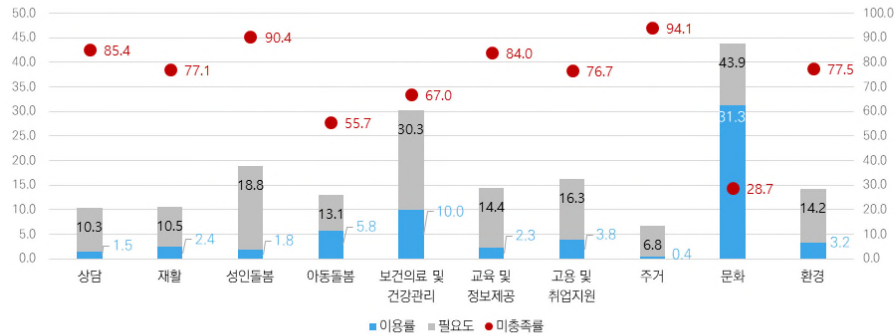


01. 왜 커뮤니티 케어인가?

3. 지역사회 돌봄 체계의 미흡

1) 불충분한 사회서비스

- 사회서비스 전체 분야에서 서비스 필요도에 비해 실제 이용률이 매우 낮은 수준으로, 사회서비스 욕구가 상당부분 잠재되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음



01. 왜 커뮤니티 케어인가?

3. 지역사회 돌봄 체계의 미흡

1) 불충분한 사회서비스

① 수급권의 보편성이 취약

- 돌봄필요+소득기준, 가구상황 등 별도의 수급기준 적용
- 취약계층 중심으로 서비스 제공

서비스 유형	서비스 내용	서비스 대상
노인장기요양서비스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기타재가급여	65세 이상 노인, 65세 이하 노인성질환자
노인돌봄 서비스	기본돌봄	65세 이상 독거노인 중 서비스 욕구가 높은 노인
	종합돌봄	노인 중 평균소득 150%이하, 장기요양등급외 판정
가사간병서비스	신체수발지원, 간병지원, 가사지원, 일상생활 지원	저소득, 장애인, 취약계층 등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자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활동보조, 방문목욕, 방문간호	1~3등급 장애인
복지관 재가복지서비스	사회복지관의 재가봉사서비스(가사, 간병, 정서, 결연, 의료, 자립지원 등)	가족기능이 취약한 저소득 소외계층 등
	노인복지관의 재가복지사업	지역 취약계층 노인
	장애인복지관의 재가복지센터(재활/심리상담, 일상생활지원, 역량강화 및 자립지원 등)	지역 취약계층 장애인

01. 왜 커뮤니티 케어인가?

3. 지역사회 돌봄 체계의 미흡

1) 불충분한 사회서비스

② 서비스의 포괄성이 미진

- 서비스 종류 및 제공 기관의 지역 간 격차가 심함
- 서비스 연계가 미흡하여 이용자 자신에게 맞는 서비스 이용이 어려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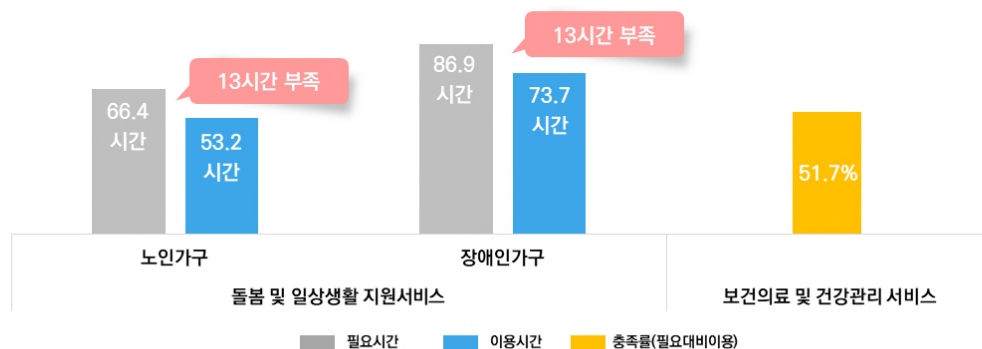
사례관리		재가서비스					시설서비스		
공공사례관리 (서울시)	치매 상담 센터	노인돌봄 기본서비스	노인돌봄 종합서비스	재가요양 서비스			재가복지 서비스	장기요양 시설 서비스	
				방문요양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방문목욕	재가노인 지원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방문요양 센터	데이케어 센터	단기보호 센터	방문요양 센터	재가노인 지원센터	노인요양 시설
희망복지 지원단		독거노인 종합지원 센터	서비스제공 기관 (재가방문, 단기보호, 장기보호 제공기관)	재가노인 지원센터	주(야)간 복지센터	노인복지 센터	재가노인 지원센터	노인복지 센터	노인요양 공동생활 가정
의료급여 사례관리			노인복지 센터	노인복지 센터					
방문·마을간호 사례관리									
복지서비스				요양서비스				의료서비스	

01. 왜 커뮤니티 케어인가?

3. 지역사회 돌봄 체계의 미흡

1) 불충분한 사회서비스

③ 서비스 수준의 적절성이 부족



01. 왜 커뮤니티 케어인가?

3. 지역사회 돌봄 체계의 미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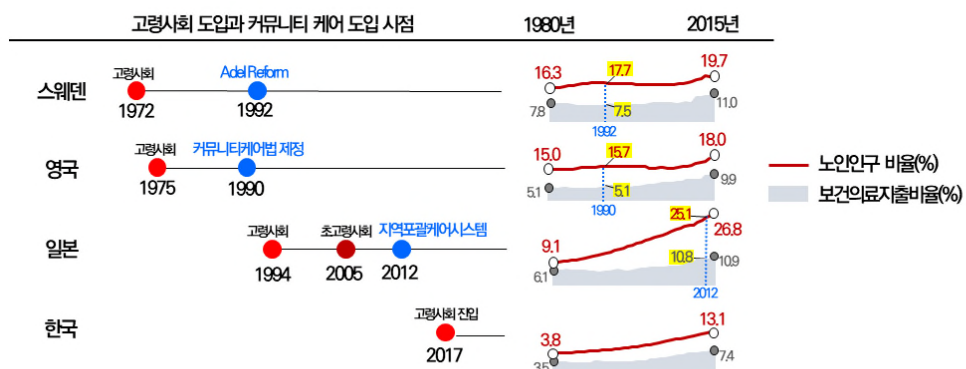
2) 분절된 사례관리와 서비스 제공

- 수요자 중심으로, 욕구파악→서비스제공까지 통합적 연계·제공
- 사업별 별도의 전달체계로 운영
 - ✓ 사업분야 다양화, 서비스 전문화→서비스 제공의 개별화
 - ✓ 민간기관이 서비스 제공기관으로 대거 참여하면서 서비스 통합은 더더욱 요원
 - ✓ 공공의 복지전달체계 내에서도 사례관리 기관 간 대상자 중복관리, 서비스 제공의 분절성, 민간자원 연계·활용에 어려움
- 서비스제공기관 및 인력의 지역 간 격차→서비스 이용에 제약

01. 왜 커뮤니티 케어인가?

4. 이제 커뮤니티 케어를 논할 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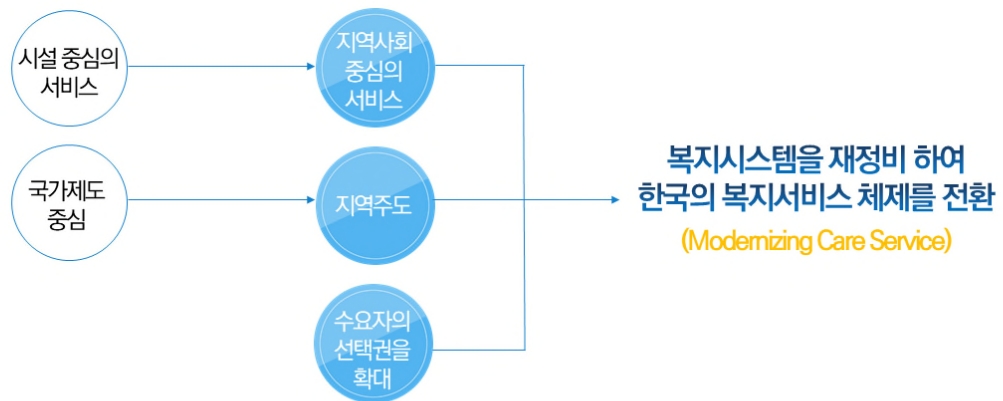
- 고령사회로의 진입, 10년 후의 초고령사회에 대비한 커뮤니티 케어 도입 논의 필요



01. 왜 커뮤니티 케어인가?

4. 이제 커뮤니티 케어를 논할 때

- 단순히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거나 기존의 제도를 개선하는 것이 아닌



02. 정부의 추진 상황 및 내용

01. 왜 커뮤니티 케어인가?

1. 추진 상황

- 3월 12일, ‘커뮤니티케어’ 추진 발표, 중장기 발전방향으로서 “커뮤니티케어 종합계획” 수립 중

커뮤니티 케어란?

돌봄(Care)을 필요로 하는 주민들이
주택이나 그룹홈 등 지역사회(Community)에 거주하면서
개개인의 욕구에 맞는 복지급여와 서비스를 누리고,
지역사회와 함께 어울려 살아가며 자아실현화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혁신적인 사회서비스 체계

02. 정부의 추진 상황 및 내용

1. 추진 상황

- 복지부 내 추진본부, 추진단 구성
- 노인의료, 노인돌봄, 장애인탈시설, 지역사회 건강관리, 전달체계, 사회서비스, 아동복지 및 총괄팀 등 8개 팀으로 구성
- 2018년 8월, 커뮤니티케어 종합계획 마련 예정



- 복지부, 행안부, 국토부 등 관계부처를 포함한 커뮤니티케어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로 구성
- 커뮤니티케어 종합계획 마련을 위한 방향 검토 및 포럼운영 예정

사람중심의보건복지정책을 위한
지역사회중심 보건복지서비스제공 로드맵 마련 추진

02. 정부의 추진 상황 및 내용

2. 추진내용

- 1** **돌봄, 복지 등 사회서비스 확충**
 - 장기요양 등 돌봄서비스의 보장성 강화 및 서비스 확충
 - 재가서비스를 중심으로 장기요양 수급자를 OECD 선진국 수준으로 확대
 - 경증치매 노인 인지지원등급 인정, 일상생활수행능력제한 노인에 대한 보장성 강화, 통합재가급여 도입 및 신규서비스 개발
 - 안전 관리 등 사회서비스 확충
 - 지역사회에서 안심생활을 지원하는 안부확인 등 서비스 확충 추진
- 2** **지역사회 중심 건강관리 체계 강화**
 - 재가 취약계층 건강권 보장
 - 장애인 건강주치의, 중증소아환자 재택의료, 가정형 호스피스, 정신건강 사례관리 강화
 - 지역사회 중심의 보건의료 서비스 강화
 - 동네의원 중심 만성질환 관리,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 확대, 방문건강관리 서비스 확충
- 3** **돌봄이 필요한 사람의 지역사회 정착 지원**
 - 병원 등에서 지역사회로 복귀를 지원하는 경로 설정
 - 사회적입원환자 대상 퇴원계획 수립, 지역사회 돌봄연계, 중간시설 모형 도입
 - 주거연계 등 지역사회 정착 지원 강화
 - 주거 및 서비스 연계 제공, 공동거주 모델 개발, 커뮤니티 케어 선도사업 모델 마련 및 시범사업 추진

02. 정부의 추진 상황 및 내용

2. 추진내용

- 4** **병원, 시설의 합리적 이용을 유도하는 제도개선**
 - 의료관리체계 개선
 - 불필요한 입원에 대한 관리 강화(환자분류체계 개선, 장기 입원에 대한 수가 및 본인부담), 의료급여 수급자 사례관리 강화
 - 적정이용 유도를 위한 평가체계 개선
 - 적정성평가 결과를 수가와 연계, 평가지표에 입원 적정성 부분 신설, 지역사회 복귀 및 자립지원 노력 평가 반영방안 검토
- 5** **지역사회 커뮤니티 케어 인프라 강화 및 책임성 제고**
 - 커뮤니티 케어를 위한 지역사회 민간 협력체계 구축
 - 지역사회 복지 자원의 기능 및 연계 강화, 복지 대상자 사례관리 및 복지자원 정보 공유, 돌봄 전문인력 질 강화
 - 커뮤니티 케어의 주체로서 지자체의 역할 강화
 - 지역사회보장계획에 커뮤니티케어 추진 계획 포함, 커뮤니티 케어 관련 지표의 평가 반영 추진
 - 읍면동 돌봄창구를 통한 서비스 안내, 연계 기능 수행
 - 읍면동에 커뮤니티 케어 담당인력 배치, 서비스 신청대행, 정보제공 등 연계

03. 커뮤니티 케어 추진을 위한 접근방법

03. 커뮤니티 케어 추진을 위한 접근방법

1. 한국형 커뮤니티 케어 추진을 위한 '3c X 3c' 접근방식

- 한국형 커뮤니티 케어는 3 Community와 3 Care를 조합하여 종합적인 정책으로 추진

community care	장소 (in the community, ordinary life)	지방분권화 (decentralization)	주체 (community led services)
치료와 간호	지역사회에서 치료	의료의 지방분권화	치료적인 지역사회
돌봄	지역사회에서 돌봄	돌봄의 지방분권화	지역사회가 주체가 되어 돌봄 참여
걱정과 근심	지역사회에서 사회복지서비스 제공	사회복지서비스의 지방분권화	지지적인 지역사회

03. 커뮤니티 케어 추진을 위한 접근방법

2. Community의 세 가지 차원

지역사회 내에서의 돌봄 (Care in the Community)

탈시설화

- 시설위주의 서비스 제공방식에의 탈피를 의미하는 탈시설화

커뮤니티화

- 시설화를 예방하고 가족의 돌봄 부담을 줄여나가는 것

지역사회에 의한 돌봄 (Care by the Community)

주체적

- 서비스 이용자의 권리와 편의를 높임

의미있는 삶

- 욕구 충족에의 포괄성이 중요

제반 노력체계

- 개인, 가족, 이웃, 지방자치단체, 비영리 부문 등이 함께 참여하여 지역사회 공동체를 복원

지방분권화 (Decentralization)

- 커뮤니티 케어는 지방분권화-지방자치화 의 토대에서 탄생

- 01 중앙-지방정부의 명확한 역할분담
- 02 지방자치단체의 권한과 책임 보장
- 03 지역의 민-관 협력의 기반 마련

03. 커뮤니티 케어 추진을 위한 접근방법

3. Care의 세 가지 차원

보건의료 서비스 (medical & health care)

- 의료기관을 통해 서비스 제공
- 건강 욕구를 가진 사람에 대해 치료, 간호, 재활 등의 서비스 제공

사회 서비스 (social care)

- 재가서비스
- 낮 활동 서비스
- 소규모 거주시설 서비스

자립생활 지원 (independent living)

- 주거, 이동지원, 일자리, 여가-체육활동, 지역사회활동 등 지역사회에서 자립생활을 위해 필요한 다양한 서비스
- 지역공동체나 민간자원을 활용하여 제공

03. 커뮤니티 케어 추진을 위한 접근방법

4. 한국 커뮤니티 케어 관련 정책의 현 주소

지역사회 내에서의 돌봄 (Care in the Community)

- 대규모 장기 시설 보호를 벗어나지 못함
- 공공 서비스의 포괄성 및 충분성이 담보되지 못해 사적 돌봄에 의존
- 보건의료-요양-복지서비스 간 서비스 연계가 되지 않아 통합적·연속적 돌봄이 어려움

지역사회에 의한 돌봄 (Care by the Community)

- 사회서비스가 불충분하여 지방정부의 서비스 제공 책임 주체 역할에 한계
- 네트워크가 약하고, 파트너십을 발휘한 경험이 매우 부족
- 주민참여 조직이 활성화되지 못하여 지역사회가 실질적인 도움의 주체로 등장하는데 한계

지방분권화 (Decentralization)

-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사업을 할 수 있는 자율성과 행정적 여력이 거의 없고, 자체사업 기획 경험 부족
- 지방재정 부담으로 인해 지역에서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개발하거나 추가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어려운 상황임

04. 커뮤니티 케어를 위한 핵심과제와 추진방향

04. 커뮤니티 케어를 위한 핵심과제와 추진방향

‘3 Community X 3 Care’ 접근방식에 따른 핵심 과제

	지역사회에서 in the Community	지역사회에 의해 By the Community	지방분권 decentralization
Medial & Health	① 커뮤니티 내에서 다양한 서비스가 충분히 제공 되는가?	⑤ 통합적 서비스 제공을 위한 전달 체계는 어떠한가?	⑧ 커뮤니티 케어를 추진하기 위한 중앙과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은 무엇인가?
Social Care	② 서비스는 욕구에 따라 이용할 수 있도록 보편성을 갖는가?	⑥ 공공과 민간 간, 서비스 제공 주체들 간, Service Users and Carers 간 파트너십을 어떻게 만들어 갈 것인가?	⑨ 지자체가 서비스 조정 및 연계, 서비스 이용에 관한 결정, 서비스의 구매 및 관리 감독의 권한이 있는가?
자립생활 지원	③ 연속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해 보건의료, 복지서비스를 어떻게 연계할 것인가? ④ 돌봄을 제공하는 기관 및 인력은 확보 되었는가?	⑦ 지역돌봄공동체, 다 직종 간 네트워크를 어떻게 조직 해 나 갈 것인가?	⑩ 관의 역할, 민의 역할(formal agency, informal sector), 주민자치활동과의 관계는 어떻게 할 것인가?
전제 조건	- 취약계층을 위한 도시 인프라 - 서비스의 질 관리 - 재정전략		

04. 커뮤니티 케어를 위한 핵심과제와 추진방향

1. Care in the Community를 위한 과제

1) 커뮤니티 내에서 다양한 서비스가 충분히 제공될 수 있는가?

포괄적 서비스

돌봄의 중증도에 따라 체계적인 케어가 제공될 수 있는 진료, 간호, 재활, 요양, 복지서비스, 일상생활지원 등 포괄적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서비스 구성

충분한 서비스

서비스의 포괄성과 충분성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커뮤니티 케어를 추진하게 되면 **돌봄의 재가축화, 소(小)시설화로 왜곡** → 돌봄 욕구의 수준에 따라 서비스 제공수준이 결정되는 시스템 마련

2) 욕구에 따라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보편성을 갖는가?

- 돌봄이 필요한 사람은 누구나 돌봄을 받을 권리로써 서비스 이용의 접근성을 높이는 게 중요
- 이용의 접근성은 대상의 ‘보편화’로
- 서비스 수급권을 확대하기 위한 방식으로
 - 기존 재가복지서비스나 요양서비스의 수급대상자 수를 늘려가는 방식
 - 건강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를 커뮤니티 케어 서비스에 포함시켜 대다수의 국민들이 이용 대상이 될 수 있게 하는 방식
 - 사회서비스 수급권에 ‘소득기준’을 없애고,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적으로 이용료를 부담

04. 커뮤니티 케어를 위한 핵심과제와 추진방향

2. Care in the Community 추진을 위한 과제

- 돌봄이 필요한 사람은 소득과 상관없이 서비스를 이용할 기회를 가지고 돌봄의 필요도에 따라 다양한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04. 커뮤니티 케어를 위한 핵심과제와 추진방향

1. Care in the Community를 위한 과제

3) 연속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해 보건의료, 복지서비스를 어떻게 연계 할 것인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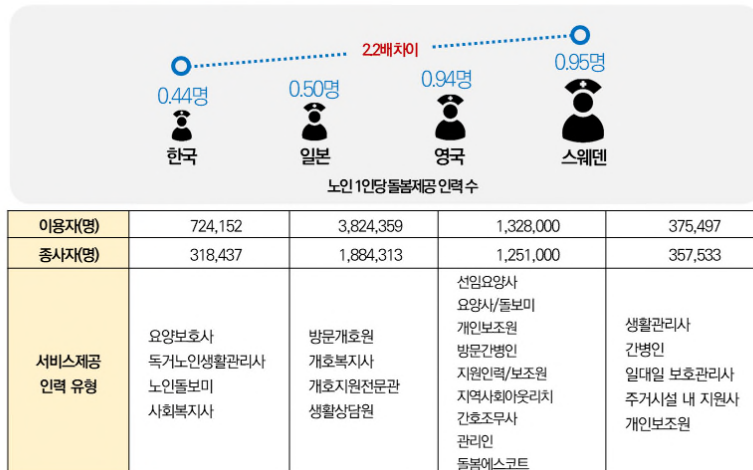
- 보건의료와 사회서비스의 통합·연계를 위한 제도적 개혁
- 의료와 사회서비스 관련 계획 및 체계를 균형 있게 맞춰 나가야 함
 - 커뮤니티 케어와 관련된 분야의 계획들 중에서 협력·연계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 조정
 - 다양한 복지, 보건의료 직종 간 네트워크 중요
- 별도의 재원을 마련하여 보건의료·보건 통합서비스를 개발하여 실행

4) 돌봄을 제공하는 기관 및 인력이 확보되었는가?

- 늘어나는 돌봄 서비스 이용자에 상응하여 서비스 제공기관과 돌봄 인력을 확보
- 새로운 서비스에 따른 신규 제공기관이나 새 직종 인력은 무엇인지 파악
- 인력수급 계획 및 전문 인력의 교육·훈련 시스템 마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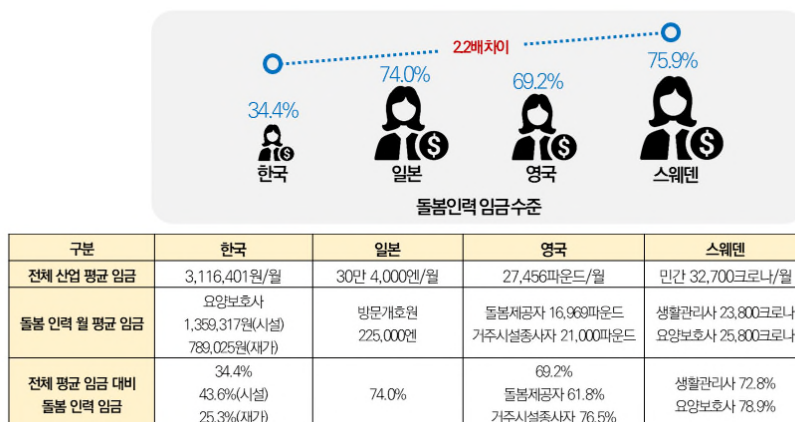
04. 커뮤니티 케어를 위한 핵심과제와 추진방향

- 기존 돌봄인력 확대와 신규 돌봄 직종 개발: 돌봄의 다양화, 세분화
 - 영국이나 스웨덴에 비해 노인돌봄 인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함
 - 제도적으로 분리(재가요양서비스, 노인종합돌봄, 가사간병서비스 등)되어 있지만 서비스가 세분화되지 않아 전문인력 유형도 매우 단순함



04. 커뮤니티 케어를 위한 핵심과제와 추진방향

- 민간서비스제공기관의 공공성 강조
 - 민간에 의해 유사시장이 형성되어 경쟁과 서비스 질 저하, 돌봄노동자의 열악한 처우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됨
 - 민간기관의 공공성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추진



04. 커뮤니티 케어를 위한 핵심과제와 추진방향

2. Care in the Community 추진을 위한 과제

5) 공급체계의 다원화: 사회적경제와 함께 하는 커뮤니티케어

- 사회적 경제와 함께하는 커뮤니티 케어가 'Care in the community'와 'Care by the community'를 동시에 실현하는 방안
- 커뮤니티 케어 추진에 따른 서비스 확대를 위해서는 서비스 제공기관 및 전문인력 확보가 중요한 과제
- 일본이나 영국 등 선진 국가들에서는 지역의 비영리민간 기관의 참여를 적극 독려함으로써 지역에 의한 커뮤니티 케어를 추진
- 지역에서 다직종간 돌봄 네트워크를 활성화하는 것도 매우 중요한 과제인데,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인가?
 - 민간의 자발적 활동?
 - 돌봄 네트워크를 활성화하기 위한 정부의 지원은?

05. 국내·외 사례

커뮤니티케어와 사회적 경제

05. 국내·외 사례

1. 해외사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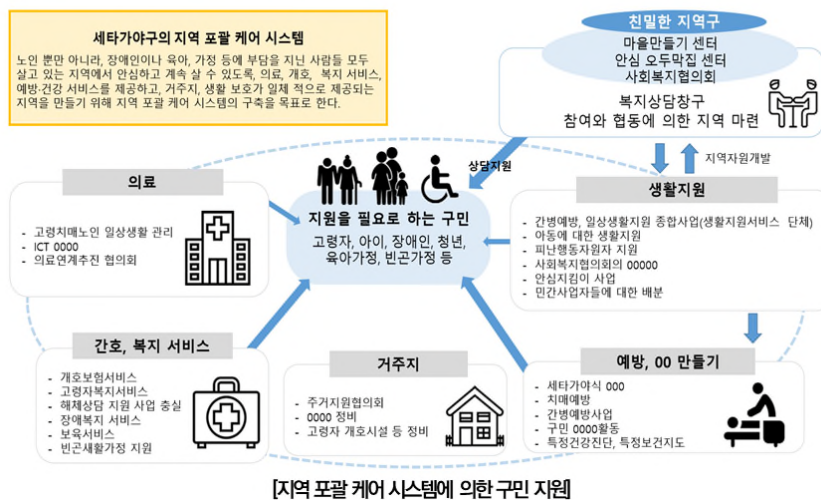
1) 일본_세타가야구



05. 국내·외 사례

1. 해외사례

1) 일본_세타가야구



05. 국내·외 사례

1. 해외사례

1) 일본_세타가야구_마을만들기센터

마을만들기 센터	전구(본청)
사회복지협의회지구 담당 직원 만남살롱지원 만남서비스사업 진행 담당 지역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지역자원개발사업 상담지원업무 지역자원파악 지역인재발굴, 육성 생활지원체제 정비	■ 세타가야구 가족 지원 센터 - 가족지원센터 사업/육아지원사업 ■ 성년후견센터 - 성년후견제도의 이용 지원/안심사업/신청절차설명회/법률상담/구민성년후견인 양성 및 지원 ■ 세타가야구 플랫폼(생활공공자 자립상담 지원센터) - 생활 공공자 자립 지원/취업지원/가계상담지원/주거확보지원금/수험생 도전지원대출/생활복지자금대출 ■ 일상 생활 지원 센터 - 만남 서비스 사업 지원/일상 생활 지원 종합 사업/NPO등 협력 회의 단체 ■ 지역복지 추진담당 - SOS네트워크/경청강좌/지역복지 아카데미

[세타가야구 사회복지협의회 활동]

05. 국내·외 사례

1. 해외사례

1) 일본_세타가야구_사회복지협의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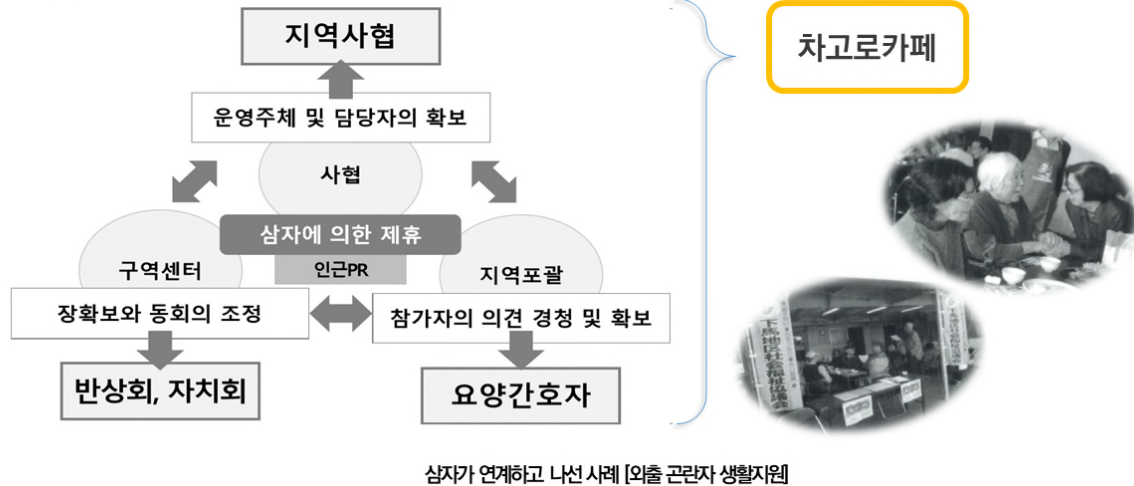
■ 사회복지협의회 지구 사무국 직원 체제 - 지역 담당 직원(생활 지원 코디네이터): 상근 1명 X 27 지역구 - 지역 복지 지원 요원: 비상근 1명	
〈대책 내용〉 • 가까운 복지 상담 창구에서 상담 지원 업무 • 생활 지원 코디네이터 배치에 의한 지역 복지 기획 • 지역의 과제나 요구의 파악 • 방문 조사에 의한 지역 자원의 파악 • 지역 활동 인력 육성,지원(지구 인력뱅크/지역 서포터즈 제도) • 과제 해결을 위한 협력 회의(제2층 협의체 운영)	〈대책내용〉 헤세이 26년도: 1지구 시범 실시 헤세이 27년도: 5지구 시범 실시 헤세이 28년도: 27전 지구 실시

[세타가야구 사회복지협의회의 지역자원 개발사업]

05. 국내·외 사례

1. 해외사례

1) 일본_세타가야구



05. 국내·외 사례

1. 해외사례

1) 일본_세타가야구_마을재단



- 2006년 마을재단으로 통합
- 사람, 마을, 자연이 하나 되는것, 공생하는것, 녹색이 있고 사람이 어울리는 마을을 지향
- 집을 활용한 마을 만들기 사업, 풍부한 자원을 활용한 지역 만들기
- 안전, 안심하고 살아가는 지역, 거주환경 커뮤니티 형성, 2004년부터 지역공생의 집

현재활동중인커뮤니티

- 어머니의 집: 엄마들의 모임(수요일), 기부로 수리, 20~40대 스태프들이 운영, 화·수요일에 지역주민들과 식사하는 모임
- 특별 노인홈에 오신분들(1개월에 한번), 노인홈 노인을 위한 공간마련, 주인과 고령자 공부하는 대학생이 참여하여 운영
- 개호를 담당하는 가족들의 차담회
- 케어담당자, 개호담당자들의 휴식, 한달에 한번씩 이야기 하는 장소
- 어린이 식당: 어린이 빈곤과 관련하여 1층 거실을 활용하여 한달에 두 번 운영
- 고령자들의 이야기 공간, 고령자 서포트 및 청년 취업지원사업, 커뮤니케이션 훈련장소, 집을 빌려준 사람이 운영

05. 국내·외 사례

1. 해외사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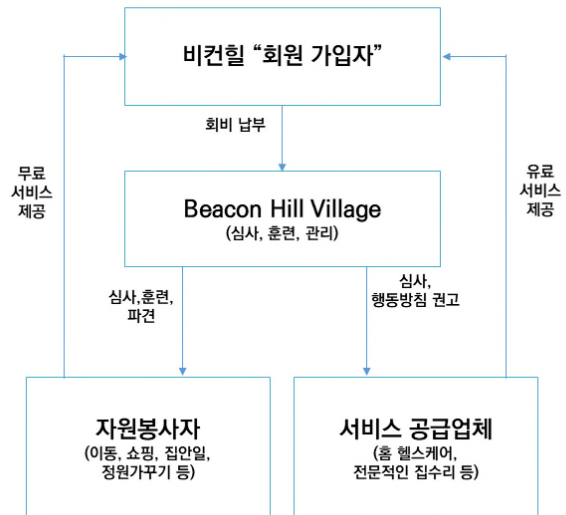
2) 미국_보스턴 비컨힐빌리지

운영

- 비영리 단체로 유급직원과 자원봉사자(100명), 서비스 제공업체로 구성
- 회원제(50세 이상)운영, 회원 400명
- 회비와 후원금으로 운영
- 연회비: 가구 \$ 975, 개인 \$675(저소득층 별도 보조)

서비스내용

- 원스톱 쇼핑: 전화 한 통이면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제공 받음
- 프로그램: 문화예술, 문학과 학습, 사교행사, 여행
- 서비스: 집안일, 외출도움, 활동적인 상태 및 건강
- 회원할인: 10% 이상의 할인율을 적용하여 공급업체의 서비스제공



05. 국내·외 사례

1. 해외사례

3) 영국_씨클모델(HMR서클)

운영

- 사회적 기업으로 4명의 스텝과 30명의 자원봉사자, 도우미로 운영(회원도 도우미가 될 수 있어 서로를 돕는 주체적 존재로 봄)
- 회원제 운영, HMR서클은 575명의 회원이 있고 400명 이상이 적극적인 회원으로 활동(회비£20~ £50)
- 서클 자체적으로 도우미와 자원봉사자에 대해 교육프로그램 진행



서비스내용

- 전화 또는 이메일로 자신의 지역 서클에 연락하여 도움을 요청하면 지역사회 네트워크를 사용하여 실질적인 문제 해결(정원손질, 집수리, 정기적 돌봄 체크, 외출도움, 기술적 도움(컴퓨터, 인터넷, 핸드폰, 소셜미디어 등))
- 외출, 식사, 가이드 산책, 관광, 공예, 음악공연 등 다양한 프로그램제공, 같은 관심사를 가진 회원들과 클럽을 만들 수 있도록 지원
- 공급업체에 회원카드를 제시하면 할인 혜택 제공(택시회사, 살롱, 카페, 레스토랑, 마사지, 볼링장 등)

05. 국내·외 사례

2. 국내사례

1) 광진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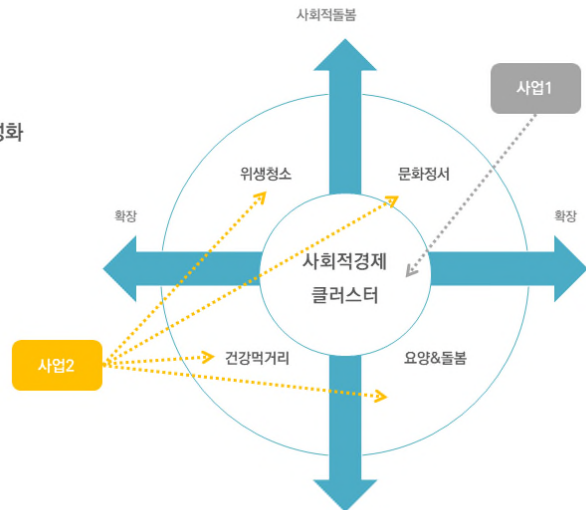
사업내용

➤사업1: 사회적경제기업 클러스터 성장 전략을 통한 돌봄산업 활성화

- 사회적경제기업 클러스터를 통한 믿을 수 있는 돌봄서비스 제공
- 이용자 측면에서 원스톱 통합 돌봄서비스 제공

➤사업2: 사회적경제기업 클러스터 서비스·상품설계

기업명	주요내용
(주)복지유니온	· 영양돌봄 및 연하도움식사(저작 및 삼김장에 도움식) 리뉴얼
(주)인스케어코어	· 주택청소, 위생관리서비스, 특수청소상품 리뉴얼
시니어협동조합	· 인력 및 강사양성프로그램 리뉴얼 · 신규돌봄사회서비스 개발
(사)한국아동국악교육협회	· 치료·정서형 돌봄프로그램 개발



05. 국내·외 사례

2. 국내사례

2) 금천구

- 조합원 26명 중 노인 5명이 함께 참여
- 금천구청 1층에 카페와 공방을 운영하고 조경식재 사업 운영. 조합원과 조합원가족 대상 수공예 및 원예 기술, 바리스타 교육 제공
- 쿠션, 앞치마, 에코백 등 생활소품 등 조합원들이 만들면 일한만큼 일당을 받아가는 구조
- 노인들이 정교한 수공예는 참여하기에 어려움이 있어 간단한 뜨개질 제품 제작(평균 월 20만 원 정도 수입)



06. 맺음말

06. 맺음말

1. 기대하는 커뮤니티의 모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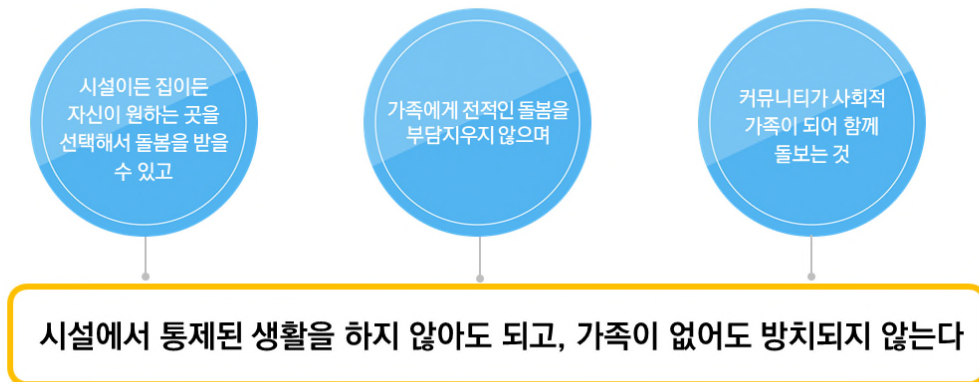
1) As is 커뮤니티와 케어



06. 맺음말

1. 기대하는 커뮤니티의 모습

2) To be 커뮤니티케어



06. 맺음말

1. 기대하는 커뮤니티의 모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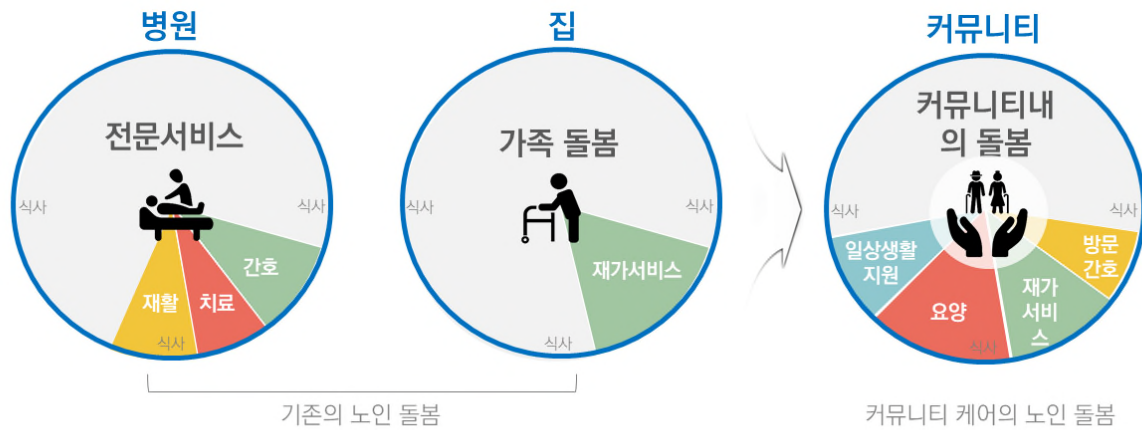
2) To be 커뮤니티케어



06. 맺음말

1. 기대하는 케어의 모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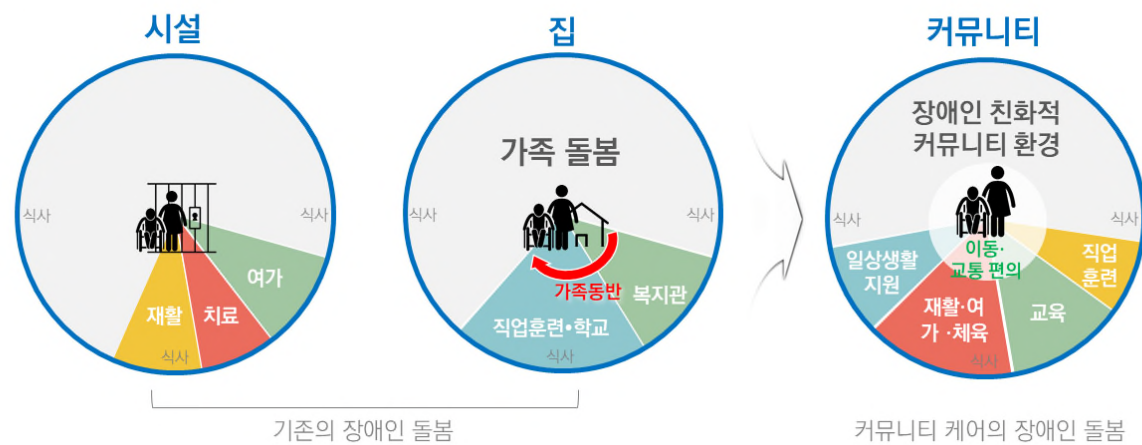
1) 외병노인의 하루



06. 맺음말

1. 기대하는 케어의 모습

2) 중증 장애인의 하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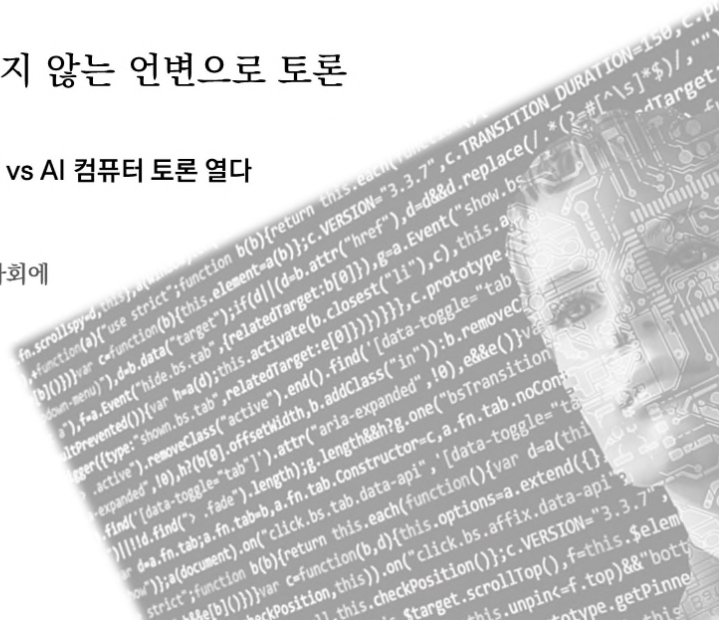


06. 맺음말

IBM 인공지능, 인간에 뒤지지 않는 언변으로 토론

미국 IBM, 인간 vs AI 컴퓨터 토론 열다

토론하는 AI보다 커뮤니케이터가 먼저 우리사회에
종착하길 기대하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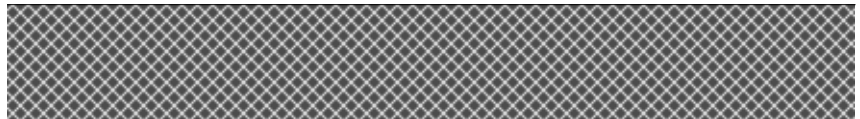
감사합니다

발제 2

일본의 사회적경제와 커뮤니티 케어 사례

타스마 야스토시

(일본노동자협동조합연합회 전무이사)



협동노동을 통한 커뮤니티 케어 창조 ~ 함께 일하고, 함께 사는 지역을 만든다~



일본노동자협동조합 (워커즈코프) 연합회
전무이사 타시마 야스토시

협동노동의 협동조합 · 워커즈 코프

일본노동자협동조합연합회는 「일하는 사람들과 시민들이 협동으로 출자하고, 경영에 참여하고, 사람과 지역에 필요한 일을 협동의 힘으로 만드는 『협동노동의 협동조합』의 연합회」입니다.

(정규회원 20,순 회원 6)

사회연대를 통해 「좋은 일」의 질을 향상시키고, 일하는 사람
「개개인의 성장과 발달」을 추구합니다.

이「협동노동의 협동조합」이라는 조직 형태를 만드는데 있어서 전
역사적 경험을 포함해 40년 가까운 시간이 걸렸습니다. (1979년
연합회 설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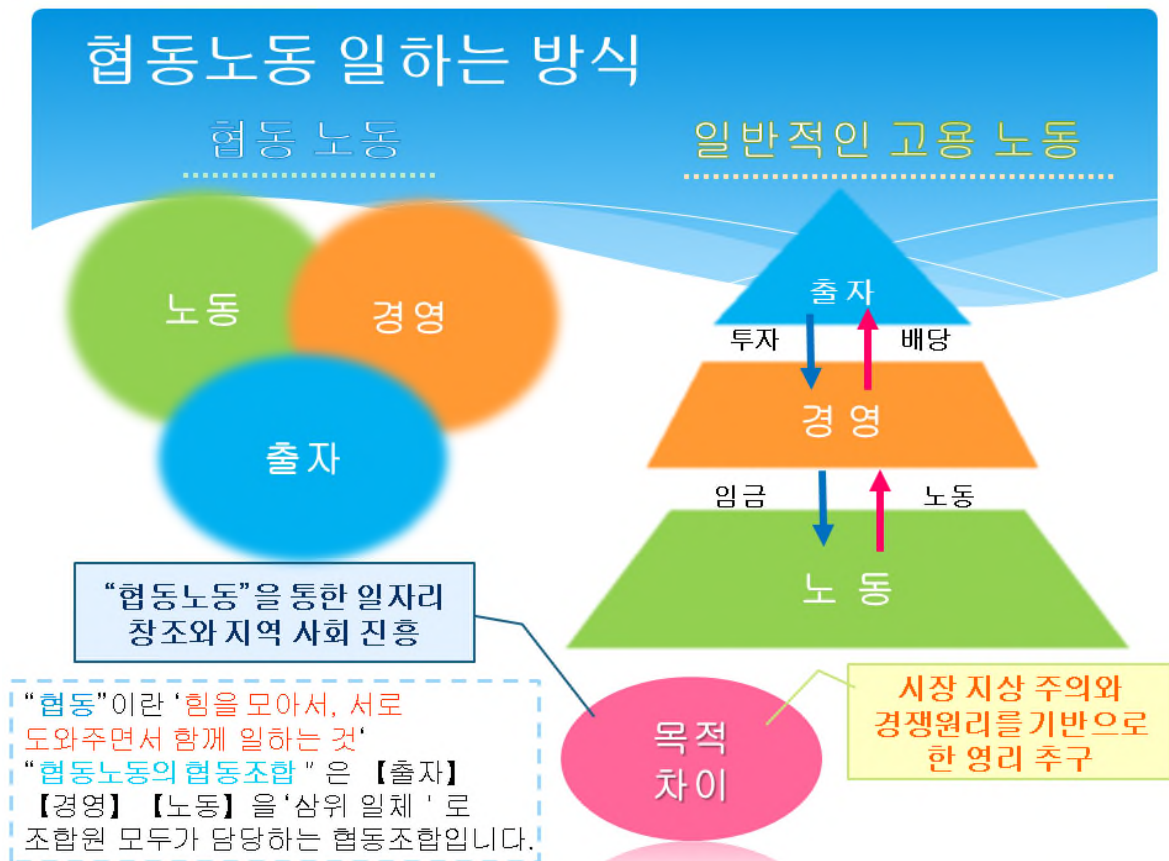
2016년도: 사업 매출액 335억엔, 취업자13,420명

「함께 일하다」·협동노동이란 무엇인가

「협동노동이란, 함께 살고 함께 일하는 사회를 향한, 시민들이 협동을 통해서 힘을 모이고 일자리를 만드는, 좋은 일을 하고, 지역 사회의 주체가 되는 일하는 방식」 (2015년도 신원칙에서)

「인간다운 가치를 가진 생활과 조화한 노동조건을 일하는 사람 스스로가 협동을 통해 결정하는 일하는 방식」 (법제도 설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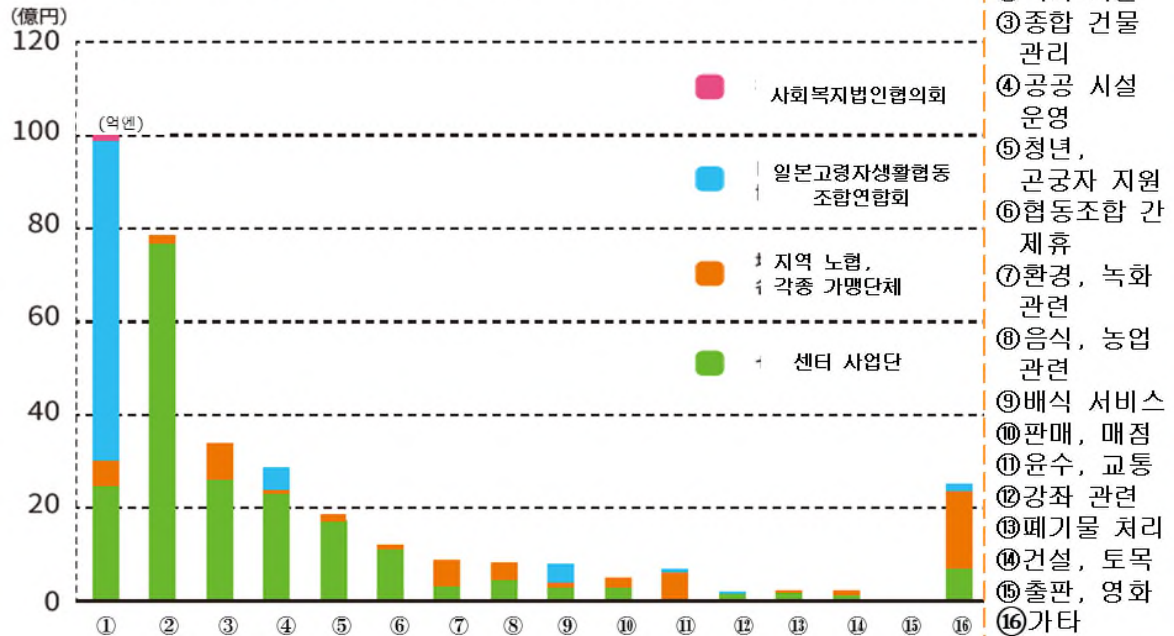
※이러한 일하는 방식 즉, 「협동노동」의 협동조합의 법제화가 실현할 단계에 도달하고 있다.



2016년도 (2016.4~2017.3) 사업 규모

일본노협연 사업액(2016년도)

사업 액: 335억엔, 취업자 수: 13,420명/고령자협동조합 조합원 51,206명



- ①돌봄, 복지 관련
- ②육아 지원
- ③종합 건물 관리
- ④공공 시설 운영
- ⑤청년, 공공자 지원
- ⑥협동조합 간 제휴
- ⑦환경, 녹화 관련
- ⑧음식, 농업 관련
- ⑨배식 서비스
- ⑩판매, 매장
- ⑪운수, 교통
- ⑫강좌 관련
- ⑬폐기물 처리
- ⑭건설, 토목
- ⑮출판, 영화
- ⑯가타

커뮤니티 케어 거점 「지역복지사업소」

1970년대 : 전쟁이후 「실업 대책 사업」 관련 사업

1980년대 : 병원 청소나 물류 위탁 사업

2000년에 도입될 “개호보험제도”(요양보험제도) 시작을 대비해 전국에서 「요양보호사 육성 강좌」를 자발적으로 개강. (약 5만 명 육성)

요양보호사 육성 강좌 수강생과 지역 주민들에게 「새로운 복지사회 창조—시민들이 주체가 된 커뮤니티 케어 거점을 설립하자」라고 호소.

전국에서 고령자 협동조합과 함께 「지역복지사업소」를 약 300개 설립(당시 사업 매출액 1/3을 차지).

현재, 노인 요양뿐만 아니라 육아 지원, 장애나 사회적 어려움이 있는 분들에 대한 케어, 취업 지원으로 영역 확대.

농업, 산림업 등 1차 산업과 연계한 「농복 연계(農福連携)」 활동이 진행 중.

개호보험제도에 대한 평가와 과제

◇2000년 개호보험제도 창설 당시 이념

「가족 돌봄부터 벗어나고, 돌봄의 사회화를 도모한다」,
「시민 자신의 제도 참여, 지역에 입각 한
분권적 돌봄 시스템의 창설」

~ 돌봄 서비스 제공자가 다양화, 민간 사업장 증대

~ 시민들이 주체적으로 운영하는 사업체에 대한 큰 가능성도 개척

◇중대한 모순 – 시장 원리와 연결해서

어르신들을 복지 서비스 「고객」 「손님」으로 취급하는 것이 돈을
버는 요양 서비스 제공을 촉진 시킴. 어르신 상태 중도화(등급
악화)가 가속화. 「자립 지원」과 「시장 원리」는 서로 배타적.

가속도적으로 커진 사회보장 비용, 돌봄사업 시장화로 제도가 왜곡
(요지원자 배제, 중도화 대처, 개호 보험 국가 비용 2000년 3.6조엔
→2015년 10조엔 돌파. 2015년에는 20조엔에 도달할 전망)

커뮤니티 케어란 무엇인가

「케어 영역에서의 협동-영국 협동조합 평의회에 위한 케어 협동조합 연구-」
에서

현재 커뮤니티 케어법(1990년 제정)과 실천들은 전체적으로
단순히(케어 워커와 이용자의) 「종속」 관계인 상대방을 「법정 섹터」
부터 「비법적 섹터」로 대체한 것 뿐.

협동조합 운동의 사명은 케어 워커 및 케어가 필요한 사람들의
주체성을 향상 시키고, 스스로 노동과 케어 및 생활을 제어할 수 있게
하는 것을 통해 (사람들의 바람직한 모습을) 「종속」 관계부터 「자립」
한 존재로 전환하는 것.

워커즈 코프 지역복지사업소의 목적

개호보험제도의 틀을 넘어서

- ① 당사자 주체인 자립지원 · 커뮤니티 케어 거점이 되는 것
- ② 돌봄 예방, 건강한 어르신을 비롯한 모든 시민들이 활약할 수 있는 거점을 만든다
- ③ 아이부터 어르신까지 세대를 넘어 사람들이 만나고 서로 도울 수 있는 풍부한 네트워크를 창조
- ④ 생활에 대한 모든 일을 서로 돕는 일 만들기과 지역 만들기로

※커뮤니티 케어란 「사람과 사람, 사람과 자연이 관계를 맺는 지역(커뮤니티)을 창조하는 케어」

(히로이 요시노리 코토대학 교수)

사례1:후카야 지역복지사업소 단란 그룹



1998년부터 “요양보호사 육성 강좌”를 자발적으로 시작. 지금까지 1000명을 넘는 요양보호사 육성. 수료생들에게 지역복지사업소 창업을 호소하고, 1999년에 처음으로 방문 요양사업소를 설립. 그 후 종합적인 복지 거점으로 확대. (주간 요양, 방문 요양, 숙박 시설, 배식 사업 등 운영 중)

어르신, 장애가 있는 등 생활에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지역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도움을 받는 관계 구축을 종합적으로 실시.

어르신들의 자발적 동아리, 가족을 위한 케어 사업, 장애나 생활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들과 함께 일하는 취업장 만들기.



후카야 지역복지사업소 단란 그룹

1994년 물류센터 위탁 업무 축소에 따라 조합원들의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 두부 제조 공장 판매소 「두부공방」을 창업 (1995년)

두부 공방에서 나온 “콩 비지”를 반찬으로 가공해 도시락 배식 사업을 시작 (1997년) 개인 집 배달을 하면서 사회에서 고립된 분, 고독한 어르신들을 만나, 외출할 기회, 만남 장로 돌봄 복지 사업소 창업을 결심.

1998년 이후, 요양 보호사 육성 강좌를 개강. (지금까지 1000명을 넘는 요양 보호사 육성) 강좌 수강생들에게 워커즈 방식의 지역복지사업소 창업을 호소. 수강생들과 방문요양 사업 인 헬퍼스테이션 단란을 창업 (2사업소),

그 후, 케어 매니지먼트 사업소 (3개), 데이 서비스(주간 요양; 2개), 단기 숙박 시설 (1개), 소규모 다기능 시설 (1개), 복지 기구 사업소(1개), 청년 지원 센터(1개), 생활곤궁자자립지원사업(1개), 발달장애인 취업지원사업(1개), 아동 방과 후 교실(1개), 장애인 취업 계속 지원 B형(1개)를 설립.

사회연대활동; 파워 재활 (재활 전용 기기) 를 도입한 자발적 동아리 활동. 건강한 어르신들 활동 거점으로 확대 중.

사례2 : 마츠도 지역복지사업소 아지사이

장애나 어려움을 가지고 있어도 「할 수 있는 것」을 활용해서 일한다



다기능형 사업소 (장애인 종합지원 제도 취업계속지원B형, 생활 훈련) 을 실시

치바현부터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한 직업훈련 강좌를 위탁 운영. (아지사이에서 치바현에 사업 설립을 요청해 실현)

2006년 설립. 개인 주택을 활용한 어르신 돌봄 주간 시설을 운영.

20~70대 25명이 일하고 있음. 장애, 고령 등 어려움을 가진 조합원들이 함께 일하는 직장임.



마츠도 지역복지사업소 아지사이

장애가 있는 분들과 함께 일터를 확대하고 있는 사업소.
조합원 25명 중 장애가 있는 사람 5명, 고령자 4명,
장애인학교에서 취업 체험을 경험해 조합원이 된 경우도 있음.

「아지사이는 장애가 있어서 함께 일할 수 있는 곳~」 주간 시설을 이용하는
어르신이 이렇게 따뜻하게 말해주는 사업소.

다기능형 사업소 (장애인 종합지원 제도) 는 당사자가 마음
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거점으로 기능하고 있음.

당사자들이 서로 만나고 대화할 수 있는 관계를 만들고, 개개인이
목표를 가지며 「지역 속에서 일하는」 시설 외 취업을 추진하고
있음.

(학습지원 등 활동 거점, 마츠도시 환경정비 사업, 병원 또는 서비스 부
고령자 주택 청소 등)

생활 서포터 강좌 (지역 주민들의 활약 거점 만들기, 어르신 동아리,
아이들 식당, 학습 지원 등을 지역 주민들과 함께 실시 중.

사례3 : 센다이 · 피어 서포트 센터 소라 다세대·다양한 사람들이 모인 거점 만들기



2014년 9월, 미야기현
센다이시에서 다세대 공생형
시설(多世代共生型施設)
「우리 집 ; 타이하쿠 단단」을
지자체 지원을 받아 설립.
아이부터 어르신까지 함께
지낼 수 있는 거점.



센다이 · 피어 서포트 센터 소라

2008년5월, 장애인 자립 지원법을 근거로 한 취업계속지원B형 시설을 창업.

정신 장애가 있는 사람들에 대해 취업과 생활 지원, 일 만들기를 목표로 개강한 피어 케어 워커 강좌를 통해 만난 수강생들이 창립자임. 장애 아동 방과 후 교실을 2개 설립.

청소나 사무용 인쇄업에서 취업 체험, 일시적 고용을 실시.

호카이도에서 활동하고 있는 장애인 공동체 「베텔의 집」에서 도움을 받은 「당사자 연구」 활동을 실시.

당사자들의 주체성을 키우는 것에 주력하고, 이용자들도 참여하는 전체 회의에서 사업 계획을 한다 (지역 주민들과 함께 극단 창설)

공생형 시설 「타이하쿠 단단」 카페에서 장애가 있는 당사자들이 취업 (취업계속지원B형 ; 시설 부석 운영)

「일하는 것」을 중심으로 둔 커뮤니티 만들기

~ 지원을 받는 사람에서 지역을 지원하는 사람으로

<자립 지원, 케어는 지역에 있는 귀중한 인재 발굴의 기회>

- 생활이 어려운 사람
- 생활보호 수급자(기타 가구)
- 히키코모리, 어려움을 가진 청년들
- 장애가 있는 사람
- 어르신
- 차세대 아이들
- UI턴 희망자 등

지원자로

<지역에 있는 과제 해결>

- 인재 부족
- 휴경기 활용
- 산림과 살림 지역 보전과 정비
- 빈 집 증가·폐업 학교 활용
- 저출산, 고령화가 심각한 지역
- 동네 생활 지원
- 지역 자연 환경, 문화, 음식, 전통 산업 계승

협동노동

<지역에 사는 장인·시민 연대의 힘>

지역 활동에 중요한 인물이 될 수 있는 지역 장인 발굴과 활동 거점 만들기 (역사나 문화, 놀이, 전통 산업, 음식, 자연에 관한 기술과 경험을 계승)

저출산, 고령화 시대 경제 성장이 없는 인구 감소 사회

2016년 인구 감소 사회가 된 일본. 현재 총인구 1억2709만 명.

2060년까지 약 30%가 감소할 예측.

고령화율은 2025년에 30%를 넘어, 75세 이상 인구가 1/5을 차지.

1인 가구는 2015년에 26.8%부터 2035년에는 37.2%로 증대.

한부모 가구는 2035년 11.4% 예측: 아이가 있는 가정 1/3로 감소 등 심각한 **고립사회** 진행.

제도 관할 부처별 사회보장서비스만으로는 서비스 대상자에서 배제될 사람들이 존재. 지원이 필요해도 도움을 받지 못하는 현실이 확대.

「배제가 고립을 유발하고, 이 것이 분단을 초래하고, 마지막으로 사회 해체를 유발할 위험이 있다. 이러한 악순환을 차단하고, 사회 연대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개별 리스크에 대한 보장만이 아닌 “관계” 그 자체를 강화하는 것이 사회보장에서 가장 중요한 과제가 될 것이다」

(야마사키 시로우 『인구 감소와 사회 보장 ~고립과 축소를 극복한다』 2017년 9월)

제도·정책의 전환기

「나의 일, 생활 통째로 지역 공생 사회 실현을」

◆후생노동성 「지역 공생 사회 실현」

「아이, 고령자, 장애인 등 모든 사람들이 지역, 삶, 사는 보람을 함께 만들고 향상시킬 수 있는 『지역 공생 사회』를 실현한다. 그것을 위해 지원하는 자와 받는 자가 나누어지는 것이 아니라 지역에 사는 모든 주민들이 역할을 가지고 서로 도와주면서 본인답게 살아 갈 수 있는 커뮤니티를 육성하고, 복지 등 지역에 있는 공적 서비스와 협동하면서 살수 있는 지역 시스템을 구축한다」라고 명기됨. 2020년부터 본격 실시.

◆지역 공생사회: 배경에 있는 일은 무엇인가

- ①100조엔을 넘는 사회보장비 억제, 삭감과 심각한 지방자치체 재정 위기를 배경으로 심화된 지역 과제; 인구 감소, 저출산, 고령화 시대를 인정하고 위기 의식을 반영한 것.
- ②반면에 ‘고립, 분단의 확대와 심화, 불안감 증대, 폐색감이 심화된 지역 사회의 현실에 대해 「주민 주체인 지역 만들기」를 지속 가능한 사회를 위한 하나의 전망과 과제로 그려야 한다’라는 인식에서.

협동종합복지 거점(우리집) 만들기

「협동노동의 협동조합법 제제화를 협동노동을 통한 지역 만들기로 활용」
「생명과 사회를 마주보는 좋은 일을 지역 주체, 시민 주체인 협동노동을 통해 창조한다」

---이 것이 워커즈 코프 최대 실천 목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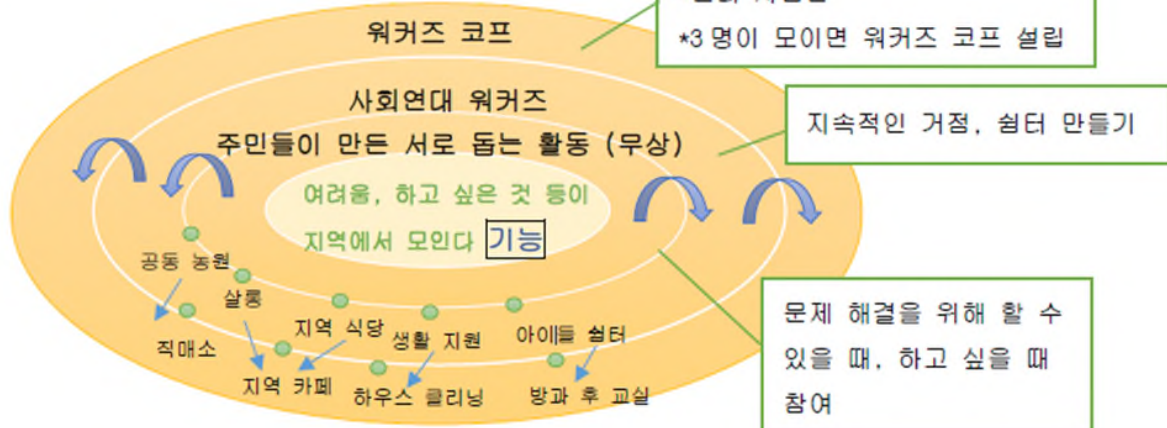
- ① 고립과 배제가 더욱 심화된 사회에서 사회보장제도의 새로운 도전-
「나의 일, 생활 통째로」로 지역 공생 사회 창조, 새로 제도화할
「공생형 서비스」등 각 제도와 정책과 연결한 활동으로
- ②이러한 활동의 가능성과 한계, 과제를 지켜보면서
- ③모든 사업장, 현장에서 세대와 어려움을 넘어서 다양한 사람들의
활동 거점이 되어, 다양한 사람들이 섞인 활동장으로 그 기능과
역할을 발휘할 수 있는
- ④주민 주체인 「협동종합복지거점」(우리 집) 만들기로 도전한다.

우리 집 구상



좋은 만남이 있고, 나의 어려움을 공유할 수 있고,
자유롭고 다양한 사람들이 모인 “우리 집”을 힘을
모아 만들어 보자! 모두의 소원을 모아, 스스로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협동 노동을 활용할 수 있어요!

이런 일을 해볼 수 있으면 하고 싶다.
할 수 있는 일부터 해보자.
함께 할 사람! 모아요~



협동노동의 협동조합법 법제화 실현을!

일본 노동자협동조합 운동 40년, 현재 「협동노동의 협동조합법」 법제화가 눈앞으로 다가오고 있다.

우리는 법제화를 통해 ‘일하고 싶다’라고 간절히 원하는 사람들 모두가 마음 편하게 일할 수 있는 사회, 그리고 그 노동이 바람직한 일의 모습(decent work)인 인간다운 일들이 사회에서 만들어가고 싶다.

법제화를 통해

- ①지속 가능한 지역 만들기(SDGs)를 실현
- ②시민 주체, 당사자 주체로 자발적인 취업 기회를 창출하고, 사회적 어려움을 가진 사람들을 위한 일자리 창출과 사회적 포섭을 목표로 실천한다.



토론

서광국
(중앙자활센터 사무처장)

커뮤니티 케어와 자활사업과의 연계성이 강화되기를 기대하며

복지담론은 많은데 복지국가로의 이행을 위한 실천은 어디쯤?

새 정부가 출범하기 전부터 한국의 복지국가로의 이행에 대한 수많은 담론이 제시되고 논의되었다. 실제로 새정부 국정과제에 포함된 문제인 케어를 비롯하여, 문제인 홈으로 대변되는 주거복지의 문제 또한 모두 복지국가로의 전환기를 맞고 있는 한국사회의 숙제이자 과제였다. 이는 한국사회가 직면한 고령화와 저출산의 속도에 대한 깊은 우려와 사회구성원들의 사회적 합의과정에서 나오는 공론과 정책이 만나는 점이기도 하다고 할 것이다.

오늘 논의되는 커뮤니티 케어와 사회적경제 역시 한국사회의 기저에 놓여 있는 시장주의와 공동체 복원이라는 충돌에 대한 정책적 대안의 논의라고 볼 수 있다. 특히 일본과 한국은 제도적 동형화가 많이 진행되고 있으며, 비슷한 사회문제를 안고 있는 상황에서 일본의 사례는 많은 시사점을 준다고 생각한다. 오늘 발표도 제도적 준비와 변화를 위한 혁신의 실타래 중 하나라는 사실에 매우 고무되고 이러한 논의가 지속적으로 확장하기를 고대한다.

먼저 커뮤니티 케어와 사회적경제라는 오늘의 주제에 대하여 사회적 합의를 위한 노력과 전략적 논의내용에 대한 공감대가 어디쯤에 와있는지 문제를 제기해보고자 한다. 한국의 복지정책은 여성, 아동, 노인, 장애인, 수급자 등 대상자 중심에서 시작하여 이를 지원하는 시설중심의 확장, 그리고 사회서비스로 대변되는 서비스의 개발과 확장을 해왔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과정은 포괄적 서비스 보다는 개별화된 서비스를 중심으로 발달하게 되었고, 수요자중심 서비스 구입이라는 시장적 기제로 서비스의 비용증가와 서비스 질의 편차마저 생기는 상황을 맞이하고 있다. 이러한 낮고 넓은 정부의 복지정책의 지원 방향과 기조가 아직 변화되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커뮤니티 케어는 조금은 낮은 정책적 실천 전략으로 보일 수 있다. 특히 복지 분야에서도 보건소의 지자체 이양이 보건과 복지를 분리하는데 일조했다는 인식이 있는 상황에서 복지부만으로 지역이라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들 수 있다는 문제에 대해 어떤 솔루션이 있을 수 있는지 고민이 필요하다고 본다. 또한 이러한 변화를 동반하기 위하여 여전히 필요한 사회적 투자개념이나 재원의 내용은 상하수직적인 지자체 경상보조지원이고, 복지업무에 대한 분장차원에서 이루어지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논의들은 아직 변경되려면 시간이 필요해 보이는데 이러한 정책이나 제도환경에서 커뮤니티 케어가 잘 작동하기 위해서는 범정부적 아젠다로 전환되어야 할 것으로 제안을 우선하고자 한다.

사실 사회적경제 또한 한국의 제도적, 정책적 상황이 자유로운 생태계를 조성하거나 자발적인 기대를 중심으로 성장하기 보다는 정부나 지자체의 성장이나 성장촉진제도가 이를 일정하게 육성하였다는 점에서 어느정도 유사한 환경에 처해져 있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한국의 복지정책에서 가장 크게 변화하고 혁신을 주도한 정부가 민주정부 1기인 김대중 정부였고, 그리고 노무현 정부를

거쳐 문재인 정부로 이어져 오면서 복지국가를 위한 국민적 동의와 사회적 공감대를 키우는 숙제에 대한 국가의 역할에 있어 과거 권위주의적 방식이 아닌 민주적 소통방식으로 변모하고 있다. 이러한 시점에서 커뮤니티 케어와 사회적경제의 만남은 분명히 복지국가로의 실천적 과제에서 매우 중요한 논의라고 할 것이다. 다만 커뮤니티 케어와 사회적경제의 접근 문제제기가 모두 지역이라는 화두, 그리고 그러한 문제가 될 수밖에 없는 지역의 인구적, 경제적, 문화적 소멸에 대한 문제를 거론하는데 주저하면서 향후 확장 주제인 안전, 소득(일자리), 환경, 소외(배제)라는 확장성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아쉬움이 드는 부분이다.

커뮤니티 케어 & 사회적 경제, 그리고 자활사업

이 세 가지 제도가 하나로 만나는 곳이 현재 돌봄영역이다. 그러나 자활사업의 전략적 정책 방향으로 인하여 만난 것은 아니다. 자활사업에 있어 돌봄은 사회서비스라는 정부정책이 도입되고 확장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현장의 대응이고 숙제였다. 50대 이상의 여성의 참여가 70~80%가 넘는 상황에서 산모, 노인, 가사간병을 시작으로 한국의 사회서비스 수행의 민간의 침범이 되면서 공공성을 담보해야 한다는 압박까지 받으며 저임금 여성일자리 노동을 확대해왔다고 할 수 있다. 사회적경제 또한 지역자활센터에서 노동통합 차원에서 근로능력이 약한 참여자와 지역의 필요에 기반한 사업개발과 공급업체를 창업하면서 시장의 생존력이 낮은 상태의 일자리 제공형 기업을 만드는 과정을 수행해왔다. 현재의 자활사업에 있어 돌봄 영역이 좋은 일자리(decent job)가 되지 못하는데 일조했다는 비판 아닌 비판을 받고 있는 것 또한 현실적 숙제이다.

하지만 자활사업은 지역 기반의 다양한 사업들을 추진해 온 경험이 있다. 자발성과 지역성을 가지고 있는 사업들을 추진하고 이를 정책화한 것이 자활사업이다. 커뮤니티 케어는 단순 돌봄의 확장이 아니라 지역사회에서 돌봄의 문제를 해결해나가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민간의 주체간의 연대와 공동의 대응이 기저에 깔려 있는 방향성이다. 이러한 커뮤니티를 구성하고 이를 사업화해본 경험이 있는 주체가 지역자활센터이고 일부의 지역자활센터는 이러한 역할을 강화하기 위하여 지자체와 협력하여 취약계층의 돌봄의 문제를 벗어나 주거안정, 심지어 취약계층의 아동, 노인, 다문화 여성 문제까지 지원하는 접근을 시도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이 단순히 탈시설화, 가족돌봄의 해결이 아닌 돌봄의 사회화, 돌봄의 다양성 등 케어영역에서 지역자립영역으로 확장하는데 매우 중요한 키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자활센터, 자활센터가 키운 다양한 돌봄제공기관, 그리고 자립영역과 연계되는 사회적경제의 활동이나 실제로 이루어지는 자활기업과 사회적기업의 네트워크적 연대 등은 향후 커뮤니티 케어의 모습에 대한 기대감을 제시하는데 일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커뮤니티 케어의 추진단이 준비하는 시범사업의 구조가 있다면 보다 정교하고 준비된 형태의 사업시행이 필요하다. 과거처럼 일정하게 예산을 확보하고 지자체의 동의만 전제한 공모형 사업의 구상은 이제 싹으로 자라는 지역사회의 노력에 대한 직접지원과 환경을 조성하는 사업방식이 병행 되었으면 한다. 직접지원은 실제로 집행의 효율성은 높으나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다양한 참여자와 공급자의 문제를 간과할 수 있고, 이를 표준화한다거나 이를 매뉴얼화하는 성급함의 우를 범할 수

있으며, 지역이라는 문제를 끌어오는데 실패했던 사례를 우리는 너무나 자주 보았다.(과거 사회서비스 선도사업)

그리고 자활사업도 이제는 포괄적 사례관리와 지원사업의 다양한 연계성을 통하여 케어가 필요한 대상이자, 케어를 제공하는 공공적 역할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우리사회 가장 돌봄과 케어가 필요한 수급자 차상위로 이루어진 자활사업의 대상자 특성을 감안하면 자활사업의 지역내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리라 생각한다. 커뮤니티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문제의 이해도를 보다 쉽게 공감할 수 있고 이러한 문제 해결의 수단이나 시행주체들에 적극적인 사회적경제 주체들을 질적으로 성장시키며, 직접적 사회혁신의 주체가 되거나 이를 수행하는 수행주체로서 연대와 협력을 모색할 수 있을 것이다. 오늘의 이토론회는 향후 커뮤니티 케어와 사회적경제가 만나는 지점에 자활사업의 역할에 대한 모색을 위한 발제로 보고 향후 이를 위한 지역단위의 지역자활 주체들이 참여하는 사회적경제 네트워크와 보건의 지자체가 참여하는 커뮤니티 케어의 확장주체들이 조기에 합일되는 세부 내용적 논의가 촉발되기를 바라며, 토론을 마무리하고자 한다.

토론

김삼용

(전국광역자활센터협회 정책위원장)

커뮤니티 케어와 자활사업의 연계방안

□ 한국의 자활근로사업

- 한국의 자활근로사업의 시초는 1990년대 초 열악한 노동조건과 불합리한 하청구조로 인한 경제적 불이익을 받고 있는 빈곤지역주민들을 조직화한 생산공동체운동(노동자협동조합)이다. 근간에 깔린 주민 조직화 및 지역화는 아직까지 사업의 주 목적이 되고 있다.
- 자활근로사업은 1996년 시범운영 사업을 거쳐 1997년 외환위기로 대량실업이 발생하며, 2000년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을 통해 제도화 되었다.
- 현재 249개의 지역자활센터, 14개의 광역자활센터, 1개의 중앙자활센터로 단일프로그램으로는 가장 큰 인프라를 갖추게 되었다.

□ 자활사업의 추진 성과와 한계

- 보건복지부 자료기준 2016년 한 해 동안 2,911개의 사업 진행을 통해 140,700명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33.7%의 자활성공율과 20.1%의 탈수급 성공률을 이루었다. 또한 5,160명의 전문자격증 취득과 1,719명의 취·창업자를 배출하고, 159명이 학위를 취득할 수 있게 지원하였다.
- 하지만 수급자들의 조건부과 일자리, 보충급여 방식의 자활급여체계의 한계 등 지역사회주민 조직화를 통한 공생의 일자리와는 거리가 멀어지고 있다. 또한 보충급여 방식으로 근로의욕을 저하시키는 제도 내에서 탈수급을 위한 서비스 전달기관으로 인식되기까지 한다.

□ 한국형 커뮤니티 케어 사업 제언

- 커뮤니티 케어사업의 핵심은 당사자 주체가 자립지원 및 커뮤니티 케어의 거점이 되는 것이다.
- 지역사회는 당사자가 서비스를 원활히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동시에, 당사자가 주체적 삶을 살 수 있도록 지원하고 훈련하는 역할을 수행하여야 한다.

- 이를 통해 지역사회의 유기적인 커뮤니티 케어 지원과 당당한 권리로의 인식을 통한 당사자 주체성 확보, 당사자가 지역사회에 녹아들어 자립생활이 가능할 수 있는 지역사회 일자리 창출도 기대할 수 있다.

□ 자활사업 인프라를 활용한 한국형 커뮤니티 케어 사업 제안

- 자활사업이 이루어 놓은 많은 성과 가운데 가장 두드러진 부분은 불모지에 가까운 사회서비스영역에 대한 개발과 안착이다. 가사간병, 노인, 신생아, 아동, 장애인등 생애 주기 전반에 필요한 사회서비스의 발굴과 실시 과정의 전초병 역할을 하였고, 장기요양보험제도의 안착과정에서도 중심적 역할을 했다고 자부하고 있다. 주거복지, 청소, 방역관련 사업에 대한 성공경험은 커뮤니티 케어 핵심 기반인 서비스 수혜자, 제공자, 지역사회 이해관계자와의 연대와 협력의 중요성을 깊이있게 인식시켜 주었다.
- 또한 이과정에서 생성된 주민 조직화의 경험, 교육 및 학습과정에 대한 훈련, 사례관리에 대한 노하우, 지역사회 이해 관계자와의 튼튼한 기반조성등 커뮤니티 케어 플랫폼의 역할에 최적화되어 있음에 주목하고자 한다. 이러한 기반을 토대로 당사자 주체의 자립지원 커뮤니티 케어 거점을 만든다면, 자활사업 발전과 커뮤니티 케어 발전의 또 하나의 성공모델을 상상하는 것은 어렵지 않게 보인다.
- 지역자활센터는 기존 자활사업의 수행팀과는 별도로 (가칭) 커뮤니티 케어 사업부를 신설, 관련 자활서비스 제공 및 지역 일반 주민 대상, 커뮤니티 케어 제공자 육성, (가칭) 지역사회 통합지원센터와의 협약을 통해, 발굴 및 서비스 요구 공동대응, 새로운 서비스 생성등 민관 거버넌스 기반, 한국형 커뮤니티 케어 사업의 중추기관으로 자리매김하기를 기대한다. 지난 20년 사회서비스 영역에서 자활영역이 그렇게 해 왔듯이...

토론

윤문주

(사회복지법인한사랑 이사장)

사회복지법인한사랑과 안심마을네트워크

STORY 1.

8세의 발달장애 아이의 이야기



엄마와 자주 오던 땅과사람이야기 카페

이란성 발달장애 아이를 둔 부모, 한 아이를 키우는 것도 힘든데 쌍둥이 장애 아이를 키워야 되니 평소에 많이 힘들어하셨다.

그래도 마을 주민들이 만든 카페이기에 아이가 떠들어도 아무도 뭐라 하지 않고 장애가 있다고 해서 보족한 시선으로 보지 않기에 카페는 어머니의 휴식처였다.

어느 날 그 아이와 엄마는 여느 때와 다름없이 카페에 왔다. 어머니는 차 한잔 마시고 아이는 매번 가던 카페 옆 횡집의 수족관 고기를 보는 것으로 서로가 관여하지 않고 편하게 지낼 수 있는 시간. 그날도 그랬다. 엄마는 마을 사람들과 수다를 떨고 아이는 수족관 앞에서 고기를 보며 서로 즐거워했다.

그러나 그날은 여느 때와 같이 평온하진 않았다. 아이가 돌을 던져 수족관 유리를 깨버렸기 때문이다. 사장님은 아이와 카페로 달려 오셨고 어머니는 당황해서 아버님께 연락하고 잠시 어머니는 이런저런 생각을 했다. 매번 카페에서 느꼈던 평온함은 순식간에 사라졌고 어머니는 자신의 처지가 원망스럽고 아이도 미웠다.

아버님은 일을 도중에 그만두고 달려오셨다. 다행히 횡집 사장님도 카페에서 일하는 장애 청년을 자주 보았고 또 마을 주민들이 자주 이용하던 횡집이라 원만히 처리해 주셨다.

수족관 고기가 바닥에 떨어져 상품성이 없어져 버렸으니 팔지도 못하니 물고기의 원가만 받고 오늘

장사는 하지 않으시겠다는 참 고마운 합의를 해 주셨다.

그래도 아버님은 미안하셨던지 회를 저희가 먹을 테니 원가로 썰어주시고 마을 분들 초대해서 술 한 잔 하겠노라고 말씀하셨다.

이리저리 마을사람들에게 연락을 하고 저녁이 되었다. 이 사람이 저 사람에게, 저 사람이 또 저 사람에게 이렇게 연락을 하다 보니 횃집은 초만원.

영문도 모른 채 오신 마을 주민들은 안타깝기도 하고 웃기기도 하고

횃집은 마을잔치가 열린 집 같았다.

그리고 한 잔씩 하고 자리를 뜨고 또 다음사람이 들어오며 이렇게 100여분들이 다녀가셨다.

어느 누구도 그냥 가지 않고 형편 것 1만원, 2만원, 3만원...이렇게 성의를 표하고 가셨다.

그날 물고기 원가는 70만원. 술값 50만원.

한 푼 두 푼 내고 가신 돈으로 이 비용을 다 치르고 아버님이 자부담 하신 돈은 10여 만 원.

부모님 입장에서는 쌍둥이 장애 아이를 둔 처지와 아이가 저지른 사고에 마음이 이중으로 힘든 하루일텐데 이렇게 여러 명이 나누면 힘들이가 줄어들 수 있다는 것.

아버님께선 마을이 참 좋고 사람이 좋다는 것을 느꼈다고 하셨다.

횃집에서의 일처럼 힘듦을 서로 나누고 함께 해결하면 발달장애인들이 지역사회에서 살아가는데 좀 더 행복한 세상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 보는 하루였다.

아무리 법제도가 중요하지만 사람과 사람이 관계를 맺고 서로를 배려하는 의식과 가치관이 변화하지 않는다면 발달장애인의 자립은 먼 이야기가 아닐까?

마을에서 협동이 상생이다.

STORY 2

발달장애인 시설이 지역에 들어오기 “ 오해와 이해 ”

우리 모두의 꿈, 우리만의 공간, 수십 년 동안 전세살이를 하는 사람들의 꿈 일 것이다.
한사랑도 마찬가지로 십수 년 동안 꿈이 현실화되던 찰나 뜻밖의 벽을 만났다.
10여 년 동안 안심마을에서 함께 했던 주민들의 출자와 지인분들의 후원으로 땅을 사고 은행 빚을 내고 우여곡절 끝에 건물이 완공을 앞둔 날이었다.
혹시 그렇지 않는겠지
이렇게 얼마 되지 않는 규모의 시설인데
수용시설이 아니고 주간보호센터 자립지원센터 이런 이용시설인데 설마...
조금씩 주민들의 반대의 소리가 들린다.
마음을 졸이며 움츠리고 있었던 발달장애인 당사자 부모님들, 입주할 단체의 직원들, 우리를 믿고 지지해 주시는 분들이 조금씩 주민반대에 동요하기 시작한다.
드디어 플랭카드가 붙던 날.
혹시 했던, 보고 듣고 싶지 않았던 문구들이 건물 주위로 수십 개가 걸렸다.
혐오시설, 죽음, 땅 값 떨어진다. 결사반대...
방송이나 신문지면에서 볼 듯한 현수막들이 보였을 때
바로 달려가서 욕을 하고 싶다고
건물에 들어와서야 서럽게 울어버린 장애부모님들
출근하면서 주위사람들의 눈을 피해 힘들게 출근하는 직원들
모두가 힘든 하루하루였다.
싸우자는 부모님들의 마음을 가라앉히고
함께 살아가야 할 동네 사람들이니 설득하고
십 수 년 동안 지내온 마을이라 이리저리 수소문해서 지역 유지들을 만나서 중립의 입장만 지켜주 시라 부탁도 하고
반대하는 몇몇 주민들을 만나 죄인 아닌 죄인처럼 머리도 조아리고...
하지만 참아야했다.
왜냐하면 발달장애당사자 분들이 이 마을에서 살아야 했기에, 우리도 살아야했고.

언론의 관심을 촉구해서 신문지면에도 몇 번 나오고 그럴 때마다 주민들은 자신들을 나쁜 사람 만 든다고 기분 나쁘다 한다. 우리는 더 처절한 분노를 느끼는데...
구청에서는 시설 사용허가에 대한 찬반 투표 실시 공고를 전봇대마다 부치고 통장들은 주민들을 대상으로 반대표를 받으려 다닌다는 소문을 들었다. 우리를 지지하는 마을 주민들도 움직였다. 부모님 들도 함께 지지서명을 받으려 뛰어다니셨다. 결과는 2500대500 찬성표가 압도적으로 나왔다. 그런 가운데 서서히 여론이 우리 쪽으로 움직임을 느낀다.

근처의 자주 이용했던 식당 아주머니도 술 한잔 하시면서 넌지시 자기는 찬성하신단다.

건물 앞 휠체어 타고 다니시던 분도 용기를 내어 사무실로 놀러 오신다.

십수 년 동안 마을활동을 하며 함께 했던 분들도 반대하는 마을 주민들을 한 분 한 분 만나 설득 작업도 해주신다.

그러면서 앞에 나서 열심히 반대 활동을 하셨던 주민분들고 단호함 보단 섭섭함을 말씀하신다

처음부터 이야기를 하고 이해를 구하지 않은 것에 대한 섭섭함을 말씀하신다. 이렇다면 희망이 보인다. 서로에 대한 감저을 나눌수 있다면 문제는 해결되리라.

드디어

반대를 주도하신 분들이 우리를 만나자 하신다.

마을 찻집에서 만난 날

지금까지 본인들이 반대했던 이유와 향후 문제 발생시 있을 책임을 부탁하시고 마무리

이젠 그만 반대하실 모양이다. 그래도 이렇게 마음을 열어주신 지역분들과 참아주신 당사자 부모님들, 함께 설득 작업을 해주신 마을 주민들, 모두에게 감사하다

구청에 현수막 철거를 요구했다. 다음날 바로 모두 철거했다.

이제 서서히 끝나감을 느낀다.

공사를 계속해도 되겠다. 6개월 동안 미루어졌던 이사도 할 수 있겠다.

마을공동체 사업에서 만난 마을주민들의 힘으로 소위 혐오시설은 마을 한가운데 당당하게 들어오게 되었다.



1. 안심마을 기본 통계 현황

1) 인구 현황

- 2017년 기준 동구 전체 인구 수 : 350,492

안심 1,3,4동 인구 수 - 안심1동 : 45,847명

안심3,4동 : 61308명

2) 대구 동구 지역특성

- 대구공항, KTX동대구역, 대구~포항간, 대구~부산간 고속도로의 나들목이 소재하는 교통의 요지
- 대구 전체 면적의 20.60%를 점하는 넓은 면적으로 도시와 농촌의 복합적인 산업분포를 이루며, 대구혁신도시와 국제페션디자인지구가 조성되고, 첨단의료복합단지, 동대구광역복합환송센터 건립등 대구경북 신성장 동력의 중심이자 변화의 중심지

-천혜의 자원인 팔공산과 금호강을 끼고 도동축백나무숲, 동화사, 갯바위, 불로동고분군 등 관광 문화유적이 풍부한 역사의 고장이며, 신암선열공원, 망우당기념관(곽재우), 표충단(신승겸장군 유적지) 등 애국선열 산 교육장 소재

3) 안심1,3,4동의 특성

영구임대, 국민임대, 분양아파트가 같이 상존하는 지역으로서 종합복지관이 영구임대단지 내에 있음. 그로 인해 신도시와 임대단지 내 주민들과 정주감의 차이가 많이 나고 유입된 사람들과 토박이 분들 간의 미묘한 갈등이 존재함. 기초생활보호 대상자와 장애인, 이주노동자, 탈북한주민 등 소수자 분들이 많이 거주함.

2. 왜 안심2동은 빠졌는지?

- 지금의 동대구 IC가 이전되기 전 IC를 기준으로 1동과 2동이 생활권이 분리되어 있었으며 이후 신도시가 1동을 중심으로 동쪽(경산 하양방향)으로 연결되어 신도시와 혁신도시가 개발되면서 3,4동의 확장이 생김

- 한사랑어린이집이 처음 만들어진 곳이 안심1동이며 기본적으로 이 지역의 경우 구도심지역으로 토지 값이 저렴하여 초기 반야월행복한어린이도서관아띠, 방과후교육협동조합동지 등 안심마을공동체 기반이 되는 교육기관이 자리 잡기가 용이하였으며 이후 1동과 3,4동 중심으로 신도심 개발이 되면서 중산층 인구 유입이 생겼습니다. 자연스럽게 판매와 생산을 통한 일자리 창출이 필요한 마을공동체 영역의 단체들이 신도시와 혁신도시가 있는 3,4동 중심으로 생겨남(사회적경제영역- 협동조합, 마을기업, 사회적기업)

3. 한사랑의 설립취지, 목적사업, 주요활동 이력

1) 연혁

- 1992. 11. 중증저소득장애아동조기교육실 한사랑 설립
- 2002. 11. 사회복지법인한사랑 인가
- 2003. 11. 사회복지법인한사랑어린이집으로 인가
- 2006. 4. 한사랑주간보호센터 개소
- 2010. 3. 한사랑발달장애인가립지원센터 개소
- 2010. 5. 한사랑장애인공동생활가정 개소
- 2011~2012 대구시 발달장애인가립지원사업 선정 (2년)
- 2012. 4. 한사랑장애인공동생활가정 2호 개소
- 2013~ 현재. 국비지원 중증장애인가립생활지원사업 선정
- 2016.7. 야베스빌(장애인공동생활가정3호) 개소
- 2017.3. 발달장애인가립생활체험홈 2개소

사회복지법인 한사랑은 1992년 대구대학교 특수교육학과 졸업생들이 대구시 동구지역을 중심으로 중증 저소득 장애유아를 위한 조기교육실 한사랑을 설립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장애유아의 교육기회가 거의 없었던 시절, 특히 경제적 어려움으로 사교육을 받을 수 없었던 중증 저소득 장애유아들을 대상으로 특수교육을 실시하고자 만들었습니다.

이후, 장애전담어린이집으로 인가를 받아 운영을 하다가, 2002년 사회복지법인 한사랑으로 인가를 받았습니다. 산하기관들은 장애유아의 성장에 따라 부모들이 필요한 서비스와 기관 설립을 요구하면서 차례로 만들어졌습니다. 방과 후 교육기관, 성인들을 위한 주간보호센터, 그룹홈 3개소, 발달장애인가립지원센터가 차례로 만들어졌습니다. 2017년부터는 탈시설 장애인들의 지역사회정착을 위한 주거서비스인 체험홈과 자립생활가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 미션

인간을 성장시키는 교육, 삶을 행복하게 만드는 문화, 서로를 살리는 복지를 중심으로 발달장애인 당사자의 삶에 든든한 조력자가 되고자 합니다.

장애인의 인권보장과 사회통합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합니다.

장애가 낯설지 않은 마을, 넉넉함과 배려가 있는 마을, 더불어 살아가는 따스함이 있는 마을을 만들고자 합니다.

3) 부설 기관 현황

기관명	이용인원	직원	특징	비고
어린이집	60명	25	·장애유아 30명 ·비장애유아 20명 ·장애인(초등) 10명	통합어린이집
주간보호센터	20	4	·발달장애성인	
그룹홈	12	3	·3개소 ·이용인원 개소당 4명, 직원 개소당 1명	
발달장애인자립지원센터	150여명	4명	·발달장애인당사자 주도의 운영과 진행 ·자립지원, 동료상담, 자조모임, 발달장애인 당사자대회 진행	사업별 발달장애인 이용 인원 상이함.
장애인지역사회생활지원센터	8	3	·체험홈 2개소 ·자립생활가정 2개소 ·개소당 2명씩 이용	
활동지원사업	170여명	4	·장애인활동지원사업	
마자대학	10명		·발달장애인자립생활전문교육과정운영	3년

4) 부설 기관의 특징

(1) 한사랑 어린이집

현재 제도상 장애전담어린이집은 입소정원의 40%내에 비장애 유아의 입소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많은 장애전담어린이집은 장애유아를 채우기도 벅찬 상황입니다.

한사랑어린이집은 다릅니다. 장애전담어린이집이긴 하지만, 비장애 유아가 입소를 하기 위해 몇 년씩 대기를 해야 합니다.

이는 한사랑어린이집이 장애유아뿐만이 아니라 비장애유아까지 포괄하는 운영방침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유로운 아이, 아이다운 아이를 위하여 유아교육과정을 실행하고 있으며, 특히 장애유아와 비장애유아의 완전통합반을 운영하고, 생태중심의 동일한 교육과정을 실행하고 있습니다. 비장애유아는 장애에 대한 이해와 다양성에 대해 배우게 되고, 장애유아는 통합교육을 통해 장애유아가 아니라 아이 그 자체로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2) 발달장애인자립지원센터

한사랑 발달장애인자립지원센터는 2013년부터 국비지원중증장애인자립지원센터

(소수장애영역:발달장애인) 에 선정이 되어 지금까지 지원을 받고 있으며 발달장애인 당사자 주도의 자립생활지원, 탈시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정규직원인 발달장애인 1인과 장애인일자리 사업의 지원을 통해 발달장애인 6명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비(발달)장애인 3인이 이들을 지원합니다. 발달장애인 당사자들은 직접 동료상담을 진행하고, 개인별자립생활지원, 자조모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2014년부터 매년 발달장애인당사자대회를 개최하고 있으며, 2016년에는 전국의 발달장애인과 관계자 등 300여명이 참여를 하였습니다. 일본의 발달장애인당사자조직인

피플퍼스트도 지금까지 매년 행사에 참여하며 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발달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발달장애인 당사자들이 주도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IL센터입니다.

(3) 그룹홈

12명의 발달장애인이 이용하고 있으며, 이 중에 5명이 주간보호센터를 다니고 7명이 안심마을에 취업해 있습니다. 특히나 자폐성 장애인이 10명입니다.

한사랑 그룹홈들은 발달장애성인이 자기결정에 기반하여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비장애성인들이 살아가는 모습과 별반 다르지 않는 삶을 살고자 합니다. 일을 마치고 장을 봐서 함께 식사를 하고, 청소를 하고 세탁기를 돌립니다. 슈퍼마켓, 시장, 세탁소, 미용실, 목욕탕을 이용하고 주변 음식점에 가서 외식을 하면서 단골 손님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상생활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바로 ‘주민으로 살기’입니다. 계절마다 이웃주민들과 음식을 나누어 먹고, 집으로 초대하여 함께 식사를 하고, 직장동료, 안심마을 주민들과 함께 하는 행사를 많이 개최하고 있습니다. 볼링대회, 달빛 걷기, 야구관람, 오픈데이 등 늘 사람이 오가고, 이웃주민들과 함께 부딪히면서 진정한 주민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지역주민들과의 교류나 방문이 제일 많은 그룹홈일 것입니다.

4. 한사랑은 왜 마을공동체를 만들려고 했나?

“완전참여 완전평등”이라는 구호가 개인의 삶에서는 어떤 모습으로 발현되어야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었습니다. 어린 아이가 자라서 성인이 되고 부모로부터 독립을 하여 자신만의 생활영역과 인간관계를 가지는 것이 가장 자연스러운 삶의 과정이 아닐까요?

그런데, 발달장애인은 아무리 교육을 받는다고 해도 비장애인처럼 될 수는 없습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그들의 존재 자체를 인정하고, 다양성이 받아들여지기 위해서는 비장애인들이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비장애인들이 가지는 장애인에 대한 편견은 장애인들을 자주 만나고 부딪히면서 변할 것이라고 여겼습니다. 즉, 자연스럽게 장애인을 만날 수 있는 생활공간, 삶의 공간을 많이 만들어 보고 싶었습니다. 그게 바로 마을입니다. 비장애인이 일하는 직장에서 함께 일하는 발달장애인, 비장애인이 누리는 시간과 공간에 늘 발달장애인이 함께 하는 마을을 상상해 보았습니다.

스쳐 지나가는 낯선 발달장애인이 아니라 비장애인의 삶 속에 함께 하는 친숙한 발달장애인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다보면 장애보다는 사람이 보이겠지요.

한사랑은 발달장애인에게 다양한 복지지원과 교육을 통해 그들의 삶을 지원하는 것 뿐 만이 아니라 비장애인들의 삶의 공간을 발달장애인과 함께 할 수 있도록 변화시켜서 장애가 낯설지 않은 마을, 넉넉함과 배려가 있는 마을, 더불어 살아가는 따스함이 있는 마을을 만들고 싶었습니다.

1) 안심마을네트워크의 역사

2008	• 반야월행복한어린이 아띠도서관
2010	• 동구행복네트워크 : 웰도락, 율하나눔텃밭 • 지역문화공동체 반반 : 문화사업 / 반야월 대동계 : 소액신용대출 등
2012	• 마을카페 사람이야기 : 동네사랑방 • 안심협동조합 : 친환경매장 땅이야기 운영
2013	• 협동조합 등지 : 방과후마을학교 • 협동조합공터 : 주택건물협동조합 협동조합마을애 아동가족센터 : 재활치료바우처
2014	• 대구동구공동육아협동조합 동동어린이집 달콤한 밥상 : 밀반찬가게 • 마을문화공작소 와글 : 마을음악회 등 문화사업, 아제 어디가 사람이야기 2매장
2015	• 마을기업 동네부엌 : 음식점
2016	• 사회적협동조합 사람이야기

2007년부터 한사랑어린이집의 학부모와 대구참여연대 동구주민회 회원, 마을주민들이 모이면 어린이도서관이 필요하다는 이야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그 후 도서관이 필요하다는 주민들을 모으기 위해 홍보를 하고, 십시일반 돈을 모으고, 직접 공사를 하여 공간을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곳이 바로 아띠도서관입니다. 이 도서관은 지금까지 마을주민들이 순번제로 자원봉사를 하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또한 발달장애청소년들의 직업체험 공간이 되기도 하고, 발달장애인들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장애인복지일자리 사업을 이용하여 사서보조로서 일을 하는 발달장애인도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현재 도서관은 주변의 비장애어린이집에서 자주 이용을 합니다. 한사랑어린이집의 장애유아들과 인근의 비장애어린이집의 유아들이 함께 책을 읽고 그들 사이에서 발달장애청년이 도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때는 한사랑 마자대학의 발달장애청년들이 함께 어울려 수다를 떨기도 합니다. 누구에게나 편한 자연스러운 지역사회 통합공간입니다.

도서관을 만들고 난 이후부터는 조금 쉬웠습니다. 주민들의 힘으로 필요한 공간을 만들어내고, 주민들에 의해 운영을 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협동과 자치를 경험한

것이지요. 2012년부터 마을단체들이 급속도로 만들어지기 시작합니다. 주민들의 사랑방 같은 카페, 친환경로컬푸드 매장, 반찬가게, 식당 등등이 도서관을 만들었던 방식과 똑같이 만들어졌으며, 더 나아가 정부의 지원에 힘입어 사회적경제를 표방하는 마을기업과 일반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의 형식의 많은 단체들이 생겨나게 됩니다.

이렇게 생겨난 곳은 자연스럽게 발달장애인들의 단골매장 되고, 취업처가 됩니다. 주민들의 힘으로 생활에 필요한 공간을 만들고, 주민들에 의해 운영되는 곳에서는 늘 발달장애인이 함께 했습니다. 이는 사회복지법인한사랑의 직원들과 부모님들이 설립 과정에서 활발하게 활동을 한 결과이기도 합니다. 특히 장애자녀를 둔 부모님들의 삶의 근거지가 안심마을이고, 마을 주민으로써 여러 제안들을 하면서 많이 만들어지게 된 것입니다. 지금도 왕성하게 활동하는 마을주민들 중 다수가 장애부모님들입니다.

장애인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마을

협동으로 상생하고 자치하는 마을

마을사람들이 행복하고 발달장애인도 당당한 주민인 마을은 이렇게 시작하였으며, 현재도 진행 중입니다.

5. 유관조직 현황과 한사랑과의 관계

1) 현황

기관명	소개	형태
대구공동육아협동조합 동동어린이집	부모협동어린이집	협동조합
반야월행복한어린이도서관아띠	어린이도서관	마을풀뿌리단체
사회적협동조합동행	먹거리, 텃밭사업	협동조합
방과후교육협동조합동지	장애비장애통합초등방과후교육	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사람이야기	발달장애인일자리창출 카페운영	협동조합
안심협동조합	친환경로컬푸드, 카페운영	협동조합
지역문화공동체반반	문화사업	협동조합
건물주택협동조합공터	사무실 및 발달장애인공유주택사업	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빅핸즈	HIV감염인 자활사업	협동조합
살림협동조합동네부엌	동네식당	협동조합
금강나루협동조합 농부마실	로컬푸드매장	협동조합
피플러브사회적협동조합	발달장애인의친환경세차일자리	협동조합
울하아나바다	아나바다	마을풀뿌리단체
마을의정원(마을기업)	공예체험 및 교육	협동조합
협동조합달콤한밥상	밑반찬 배달 및 공동구매	협동조합
협동조합책방아이	북큐레이터 및 도서판매	협동조합
와글	안심마을행복음악회 운영 및 안심마을 아빠들 자치모임	마을풀뿌리단체
대동계	안심마을 상호부조 및 마을회원 및 단체소액 대출사업	마을풀뿌리단체
협동조합마을애 아동가족센터	재활치료바우처, 장애인가족지원사업	협동조합

2) 관계

(1) 안심마을네트워크 체계

안심마을네트워크는 정식 명칭이 아닙니다. 사람들마다 다른 명칭을 사용합니다. 이 말은 이 단체들을 아우르는 상위단체(협의체)가 없다는 말입니다. 사안에 따라 모여서 협의를 하지만 협의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다보니 마을을 대표하는 대표자도 없습니다. 필요에 따라 모였다가 흩어지는 유기체입니다.

예를 들어 매년 열리는 마을축제에는 가장 많은 단체들이 결합을 합니다. 때가 되면 작년 주체가 여러 매체를 통해 준비회의를 알립니다. 새롭게 생겨난 단체들이 결합을 하기도 하고, 혹은 마을축제기획단에 결합을 하지 않는 단체도 있습니다. 어린이날 마을큰잔치도 마찬가지입니다. 필요하다고 생각하여 하고 싶은 단체들이 모여서 준비를 하고 진행을 합니다.

안심공약만들기 사업(?)은 관심있는 마을주민들이 개인 자격으로 참여를 하기도 합니다.

또 마을 주민이 필요한 사업을 제안하여 관심 있는 사람이나 기관들이 모여서 진행을 하기도 합니다. 영화보기, 동아리모임 등이 이런 것입니다.

전국에서 마을탐방을 오시는 분들이 제일 궁금해 하는 것이 바로 이 체계입니다. 하지만 위와 같이 형식적인 체계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전체를 아우르는 협의체는 없습니다. 모였다가 사라질 뿐입니다.

(2) 한사랑과의 관계

한사랑은 위의 여러 행사나 사업에 필요에 따라 결합을 합니다. 어린이집의 경우 어린이날, 마을축제, 가족친화만들기사업, 김장나누기 사업 등에 결합을 하고, 발달장애인자립지원센터의 경우 마을축제, 장애인의 날 마을주간행사, 안심슈퍼스타k(행복음악회), 김장나누기 등에 참여를 합니다. 한사랑도 여러 단체들 중에 하나입니다. 부설기관도 사업의 성격에 따라 결합의 정도가 다릅니다. 하지만 이 많은 사업과 공동행사에 발달장애인들이 자연스럽게 참여를 할 수도 있고, 발달장애인 당사자들이 직접 준비위원으로 활동할 수 있는 것도 안심마을의 핵심적인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마을축제 준비위원으로 그룹홈과 자립지원센터의 당사자들이 준비위원으로 활동하는 모습은 비장애인인 마을주민들에게 또 다른 충격이었습니다. 서비스를 받는 수혜자에서 당당한 지역주민으로 제 역할을 하는 과정인 셈입니다.

다음은 발달장애인의 행복한 마을살이를 위해 한사랑과 안심마을네트워크가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발달장애인의 일자리 지원을 위해 취업처인 마을기업과 협동조합의 관계자가 모여 협의를 하고 대안을 모색합니다. 취업을 하고 나면 지원이 종료되는 것이 아니라 안정적인 직장생활과 직장 내 애로사항들을 모색하기 위해 한사랑과 늘 논의를 합니다. 아마 이런 것 때문에 발달장애인의 취업이 유지되는 것이기도 합니다. 이제는 새로 협동조합이나 마을기업이 만들어지면 관계자가 한사랑에 연락을 하여 발달장애인을 취업시키고 싶다고 합니다. 발달장애인의 근무조건과 임금인상 등에 논의도 매년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장애인의 날 마을주간행사는 발달장애인자립지원센터가 주도하여 마을과 함께 하는 사업입니다. 발달장애인당사자대회라는 큰 행사에도 마을주민들이 함께 합니다.

역시 체계가 없습니다. 사안에 따라 필요에 따라 모입니다. 한사랑이 먼저 요구할 때도 있고, 마을에서 요청해 올 때도 있습니다. 체계는 없지만 긴밀하게 깊숙이 관계 맺고 있는 마을입니다.

6. 발달장애인의 주요 취업처와 인원, 급여 수준, 지역주민 역할

업체명	주요내용	취업 인원	비장애 직원	취업형태
카페사람이야기 KERIS점	혁신도시 내 카페	3	3	직접고용
카페사람이야기 중앙연수원점	혁신도시 내 카페	2	2	직접고용
카페사람이야기 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혁신도시 내 카페	4	2	직접고용(예정)
땅과 사람이야기	로컬푸드, 카페, 문화공간	3	3	직접고용
한사랑어린이집	장애전담어린이집	2	25	직접고용, 장애인일자리
사회적협동조합 동행	출장뷔페, 급식, 마을텃밭	3	15	직접고용, 장애인일자리
살림협동조합 동네부엌	마을식당	1	2	장애인일자리
동지	방과후 마을학교	1	2	장애인일자리
달콤한 밥상	밀반찬가게	1	5	직접고용
농부마실	로컬푸드	1	3	직접고용
공동육아협동조합 동동어린이집	어린이집	1	3	직접고용
한사랑발달장애인자립지원센터	발달장애인자립지원	7	3	직접고용, 장애인일자리
협동조합마을애 아동가족센터	재활치료바우처	1	3	장애인일자리
아띠도서관	민간어린이도서관	1	사서 30명	장애인일자리
		30		

- 직접고용으로 일하는 발달장애인들은 최저임금유예적용된 중증의 자폐성, 지적장애인들입니다. 현재는 최저임금의 60% 수준의 급여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보호업장에서도 탈락된 낮은 수준의 작업기능을 가진 장애인들입니다.
- 장애인일자리로 일하는 발달장애인의 급여는 최저임금을 반영한 지원금입니다.

이 외에도 발달장애인자립지원센터에서 발달장애인의 취업 연계 사업을 통해 일반기업체, 보호작업장 등에 취업한 인원은 매 년 20여명입니다. 2013년부터 지금까지 100여명을 취업시키고 지원하고 있습니다.

6. 발달장애인 주거지원 현황

기관명	인원	비고
그룹홈	12명	재가발달장애인
체험홈, 자립생활가정	5명	재가발달장애인
1인 독립가구 지원	6명	탈시설장애인 5명 지원 포함

7. 탈시설 지원사업

(2017년 기준)

탈시설 역량강화 실적	·평생교육 37명 ·탈시설준비(동네구석구석) 6명 ·당사자대회, 캠프기획단 등에 결합
탈시설 지원 실적	·자립생활가정, 체험홈 등 (타기관으로 연계) 2명 ·한사랑 자립생활체험홈 1명 ·1인 독립가구 5명
연계시설	·일심재활원, 요한의 집, 청구재활원, 천혜요양원, 성보재활원 ·카리타스달서구보금자리

2018년에 시설발달장애인 5명이 한사랑의 자립생활가정, 체험홈에 입소할 예정이며, 1인 독거의 형태로 안심마을에 정착하기를 희망하는 시설발달장애인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8. 공공기관의 협조 및 참여

교육학술정보원, 중앙교육연수원에는 각각 3명과, 2명의 발달장애인들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곧 대구경북 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내 북카페와 카페에 4명의 발달장애인이 취업할 예정입니다.

공공기관 모두가 그렇지 않지만 세 기관의 경우 기관 차원이나 민주노총 산하 노동조합 차원에서 지역사회에 공헌할 수 있는 일들을 찾았고 저희와 자주 만남을 가지면서 공공기관 내 일정한 공간을 내어주셔서 카페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장애인의 날 및 어린이날 축제, 마을 축제, 음악회 등에도 후원을 해주시며 가스공사의 경우는 발달장애인당사자대회에 정기적으로 행사 지원금을 후원해 주고 있습니다. 향후에는 좀 더 기관과 직원 분들과 함께할 수 있는 다양한 거리를 마련하여 직원들이 지역사회와 장애인의 이해를 높이기 위한 관계들을 더 많이 만들 계획입니다.

3, 4동 주민자치센터에서는 즉석 사진기를 비치하여 그 기기를 관리 운영권을 발달장애청년에게 위탁하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사랑발달장애인지원센터에서는 동네구석구석이라는 프로그램을 통해 발달장애인들이 지자체 공공기관, 민간기관을 정기적으로 방문하여 직원들과 상담을 통하여 당사자 장애인들의 요구와 지자체가 진행하고 있는 장애인 지원에 대해 의견을 나눕니다. 이런 자리를 통해 서로의 관계 맺기를 하고 있습니다.

LH가 가지고 있는 학교 부지를 사회적협동조합 동행에서 위탁 관리를 하면서 발달장애 청년 2인, 지역의 노인 분들이 함께 일을 하고 있고 지역주민들과 어린이집, 유치원, 지역단체에 텃밭 분양을 하고 있으며 텃밭에서는 생태교육과 마을 김장나누기, 텃밭 작물나누기를 통해 공동체적 의식을 나누고 있습니다.

올해는 혁신도시에 입주하고 있는 한국가스공사의 노동조합에서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과 안심마을공동체 지원으로 사회공헌사업을 진행할 것이며, 사회공헌기금(약 5천만원 예상)을 편성해서 후원할 예정입니다.

9. 한사랑의 중장기 과제와 미션

한사랑이 마을공동체 형성과 발달장애인이 마을 안에서 자립을 위한 허브공간이 되어왔습니다. 법적으로 마을에 쓸 수 있는 법인의 예산과 다수의 직원들의 희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법인의 공공성을 더욱 살려 마을 단체나 관, 지역주민과 결합하면 발달장애인의 마을에서 자립의 목표는 더욱 더 좋은 시너지를 낼 거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한정된 예산과 법인의 수행해야 할 상시 사업은 그런 우리의 꿈을 이루기엔 역부족이라 생각합니다.

발달장애인의 지역 내 주거안정을 위하여 기존의 공동생활가정의 형태가 아닌 다양한 주거모델을 개발하고 지원 유지하기를 원합니다. 마을 주민들과 함께 만든 주택에서 발달장애인들이 보호받고

지지받고 관계가 있는 삶을 살아가길 꿈꿔 봅니다.

주거가 안정되지 못한 청년들과 발달장애청년들이 함께 사는 집을 꿈꿔 봅니다. 함께 텃밭도 가꾸고 여행도 가고 집을 함께 꾸미고 마을 카페에서 맥주도 한잔하며 서로를 이해할 수 있는 관계가 있는 주거를 꿈꿔 봅니다.

주거만큼 일자리 또한 늘어나야 하겠습니다. 혁신도시 내 공공기관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여건을 마련해 주었으면 합니다. 공공에서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일거리나 공간을 발달장애인을 위한 공유 및 일자리 공간 및 기회로 제공해 주길 바랍니다.

하지만 이런 꿈을 이루기 위해선 행정의 이해와 협조 지원 그리고 초기 재정의 지원이 필요합니다. 주민들과 당사자들이 꿈이 현실화 되는 것을 본다면 좀 더 모험적으로 참여를 할 거라 생각합니다. 이젠 종합적으로 꿈을 현실화 시킬 수 있는 별도의 체계가 마을 안에 있어야 할 거라 생각하고 행정의 지원도 이전과는 다르게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할 때입니다.

마지막은 지속가능입니다. 어릴 때부터 발달장애 아이들이 어린이집을 함께 다니고 학교를 함께 다니고 마을에서 일하고 거주하는 것, 함께 했던 비장애 친구들이 발달장애 당사자를 지지해주는 마을, 또 그 부모들이 자식의 친구들을 알고 지지해 주는 마을, 그 부모들의 지인들이 발달장애인을 지지해 주고 이해해 주는 마을, 이런 마을이 된다면 안심 1,3,4동은 발달장애인이 안심하고 여생을 보낼 수 있는 마을 그리고 그 다음 태어나는 장애인도 안심하고 살 수 있는 마을이 되지 않을까 상상해 봅니다.

주최 :  재단법인 **중앙자활센터**, 전국광역자활센터협회,  대구광역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